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Contents

공모전 소개	03
--------	----

사진으로 보는 뉴스일기	04
--------------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위원평	06
---------------------------	----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하기	11
---------------	----

코로나19와 미디어교육, <뉴스읽기 뉴스일기> 하는 법	16
--------------------------------	----

수상 대표작 모음	38
-----------	----

● 이사장상	39
--------	----

● 개인(어린이, 청소년, 성인)	44
--------------------	----

● 단체(어린이, 청소년, 성인)	96
--------------------	----

● 우수지도자상	121
----------	-----

● 특별상	125
-------	-----





공모 주제

뉴스읽기를 주제로 한 뉴스일기장
다양한 뉴스를 주제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작성

참가 자격

개인(1인)	단체(2~30인)
- 어린이-저학년(만 7세 이상~9세 미만) - 어린이-고학년(만 9세 이상~13세 미만) - 청소년(만 13세 이상~19세 미만) - 성인(만 19세 이상)	학교, 동아리, 가족, 직장, 동호회 등

※개인, 단체 구분 기준

예) 30명이 한 학급인 학교에서 각자 1권씩 총 30권의 일기장을 작성하여 제출 ⇒ 개인
같이 1권의 일기장을 작성하여 제출 ⇒ 단체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일기장 실물)	일기장 온라인 양식 다운로드
2020년 5월 8일~조기 소진 시 마감	2020년 5월 8일부터 상시 다운로드 가능
웹 주소를 통해 일기장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  QR 코드	재단 홈페이지, 포미(Forme)사이트, <미디어 리터러시> SNS에서 제2회 뉴스일기장 다운로드
전화: 02-2257-6389 (평일 10:00~17:00)	양식 다운로드 후 출력(A4사이즈)하여 작성

작성 기간

수령일~2021년 2월 26일
(뉴스 출처 기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30회 이상 작성)

제출 방법

제출 기간: 2021년 3월 1일~3월 19일
우편 및 방문
- 우편 접수 시 등기 제출(마감일 소인 인장, 연락처 필히 기재)
- 방문 접수처: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2층 미디어교육팀 앞

제출 형식

1. 뉴스를 활용한 일기 형식의 공모 책자, <뉴스읽기 뉴스일기> 실물 제출
2. 일기장 온라인 양식 다운로드 후 출력, 작성하여 실물 제출

시상 내역

- 이사장상(1명 또는 1팀) • 개인(어린이-저·고학년, 청소년, 성인 부문) 금·은·동상
- 단체 금·은·동상 등 시상 예정

결과 발표

2021년 3월 29일 예정. 포미(Forme) 사이트, 재단 홈페이지,
<미디어 리터러시> SNS 통해 게시 및 개별 안내



유의사항 1) 타 공모전 수상작품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 작품 등은 응모할 수 없음. (발견 시 당선 취소 및 상장, 상금 모두 회수)

2) 응모작은 국내외의 저작권, 초상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심사 및 수상이 취소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제출한 일기장은 모두 반환하며, 수상작품에 대한 활용 권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귀속됨.

|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에게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19년, '뉴스읽기를 주제로 한 뉴스일기장'을 배포하고 총 상금 1억여 원 규모의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원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매뉴얼을 소개하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분야별, 연령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평소 뉴스 및 미디어 이용습관을 점검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해 보아도 좋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일기로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 혹은 그림 등 자유롭게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색종이, 스티커, 색연필로 여러분의 일기장을 재미있게 꾸며도 좋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어린이부터 직장인, 가족,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일기로 기록해주세요!



| 사진으로 보는 뉴스일기 📷



| 사진으로 보는 뉴스일기 📷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위원평

김철훈(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은 매우 훌륭했다. 크고 작은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다채롭게 일기장을 채웠다. 그중, 인상 깊었던 단체 성인 부문 작품에 대한 감상을 심사평에 녹여보았다.

어머니와 남매로 구성된 '꿈꾸는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팀은 뉴스일기의 전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을 갖추면서도 내실 있는 작품을 제출했다. 개인적으로, 병상의 어머니가 이 활동을 하면서 회복해 가는 모습과 각 토픽마다 어머니와 남매가 남긴 코멘트도 인상적이었다.

인권동아리 '함께 가치'팀이 응모한 작품은 당장 책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났다. 인권과 관련한 법규 규정 용어해설 등 관련 지식을 담았으며, 뉴스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도 그대로 보여주는 등 미디어교육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봉사 단체 연구원들이 구성한 '단초(Clue)'팀은 각자 관심이 있는 기사를 정리하고, 매월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정리했다. 30대부터 50대, 80대까지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담아낸 일기가 매우 흥미로웠다.

은퇴한 실버 어르신들로 구성된 '뉴스 읽고 시작(詩作)'팀이 응모한 작품은 독특한 내용과 작성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 팀은 주로 종이 신문에서 나오는 시를 찾아 감상하고, 관련 주제로 창작한 시를 일기장에 담았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뉴스읽기와 뉴스일기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위원평

임영섭(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장)



평소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고위공직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는 대학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때 북한군 남파를 요청했다”는 허위정보 등을 접하면서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가 뒷받침되지 않는 공교육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해왔다.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듯 리터러시를 통해 비평능력과 사고력, 판단력 등의 기본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 대신 “그 답은 참고서에 없다”고 답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뉴스읽기 뉴스일기> 중·고교생 등 단체 청년부 심사를 하면서 나의 이런 기우(杞憂)는 큰 희망으로 바뀌었다. 물론 훌륭한 지도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뒷받침된 덕분이겠지만, 중·고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찌들어 영혼 없는 세대가 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들의 비판은 신선했고, 열정은 넘쳤으며, 대안 제시도 훌륭했다.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위원평

유진환(전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 초빙교수)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오늘날 범람하는 미디어 정보에 필연적으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세대들에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한지’ 새삼 일깨워준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다.

응모 학생들이 제출한 <뉴스일기> 속에는 응모자들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취사선택한 뉴스를 읽은 뒤 느낀 그들만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진솔하게 글로 쓰고,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며, 때로는 뉴스의 주인공과 가상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 등 참으로 소중한 그들만의 값진 기록들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문’인 뉴스를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과 정보에 대해 새로 알게 되고 세상과 소통하며, 나아가 그 뉴스가 미처 다루지 못한 관련 분야의 추가정보와 지식에 대해서도 스스로 찾아내 정리하고 학습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날의 뉴스를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되새겨보며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번 공모전의 출품작들은 이처럼 응모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뉴스를 가지고 서로 다른 독특한 형식과 내용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낸 우수한 작품들이 의외로 많았고, 그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엄밀하게 우열을 가리고 순서를 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사업이 보다 폭넓게 전파되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위원평



남정석(서울장안초등학교 교사)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과정에 녹여내고, 나아가 학생의 삶 속에 녹여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던 터라 공모전 심사 의뢰가 반가웠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를 볼 것이라는 생각, 더 나아가 모범적인 사례를 접할 것이라는 생각에 산출물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지, 산출물의 질은 목적을 충족할 만한지에 대한 우려도 되었다.

심사 장소에 도착해서 심사할 분량을 확인하고 높은 관심에 놀랐다. 심사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쓴 마스크의 답답함도 잊을 만큼 내용 속에 빠져들어 줄곧 감탄사를 쏟아냈다. 심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참가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저마다 독창적인 색깔의 산출물로 구현되었기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자기 주변 일상의 삶과 연결하여 다양한 형식의 일기로 풀어 쓴 것이 인상적이었다. 비록 정보의 이해나 감상 위주였지만 그 중에는 정보의 진위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정보를 분석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엿보인 작품도 있었다.

청소년과 성인 작품으로 갈수록 뉴스에 드러난 핵심 정보를 분석하여 다른 정보들과 비교, 평가하며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일기에 메시지를 담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돋보였다. 특히 뉴스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의 기사와 비교하며 자신만의 칼럼 등으로 쓴 일기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여러 명과 이야기 나누기, 의문이 든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하기, 읽기 전과 후의 생각 비교하기, '댓글' 분석과 감상하기, 뉴스 생산 배경과 이해관계 탐구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다른 참가자나 학교 현장의 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다.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잘 형성된 학생은 단체 SNS에 올라오는 글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거짓 정보를 걸러냄으로써, 공동체에게 진실을 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통하여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기반 사회의 시민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곳에 실린 수상자들의 작품을 보고 공감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거나 그러할 사람들이라 믿는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미디어 속에서 가치를 찾는 즐거운 여행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위원평

정형근(정원여자중학교 교사)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뉴스일기’를 읽으면서 매우 놀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뉴스를 활용한 수업을 따분하고 어려운 것으로 느끼는데, 응모작들은 ‘열심히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풀어 놓았다. 응모자들이 기울인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았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연필을 꺾꺾 눌러가며 쓴 뉴스읽기는 내용 이해와 정리, 그리고 간단한 소감으로 이루어져 소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어른들의 말투와 생각으로 쓴 뉴스를 읽고 스크랩, 정리, 감상을 적는 그 자체로 쉽지 않은 대단한 활동이다. 앞으로 뉴스의 내용에 대한 파악과 정리에 이어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제시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자신이 틀을 세우고 뉴스를 분석하는 태도가 훌륭했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고, 이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구성은 뉴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갈래나 관점을 다룬 글을 비교하거나,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맥락을 찾아가며 뉴스를 읽으려 노력한다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의 신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 지원자들의 작품은 뉴스일기의 사례집으로 내놓아도 좋을 만큼, 다양한 초석과 모범을 보여주었다. 뉴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맥락을 찾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뉴스를 읽고 그것을 일기로 남기는 것은 나를 둘러싼 다양한 세계와 접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다. 공모전이 끝난 이후도 지속적인 뉴스일기를 쓰며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하기



‘사회적 존재’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¹⁾

‘미디어 리터러시’ 역사와 개념의 분화·확장-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근 들어 자주 사용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현대 소셜 미디어 사회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다.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출발했지만, 특히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변화를 역사적, 학문적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응용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용어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여러 형태의 변형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기술로써 미디어 형상과 양식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확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많은 파생어들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디어를 단순한 기술로 이해하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기능주의적 또는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디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체제이자 제도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리터러시 개념의 원형성

모든 미디어는 미시적으로 인간의 지각과 인지, 그리고 행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구조와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기능 조작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 행위이며 동시에 제도적 변동을 수반하는 동태적 요인이기도 하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맥락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어원을 추적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요구되는 인간의 다면적 능력을 의미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인 문해력을 의미한다. (Martin, 2010). 구두 언어를 리터러시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이 신체 외부의 매개체를 사용해 소통하는 능력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서면 형태로 된 문자로 의사소통한 것은 기원전 3,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구두로 연설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정치와 법률 등 공공적인 사안을 다루는 장소에서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일반화된 양식이었다. 그러나 도시국가가 자리 잡으면서 리터러시가 요구됐다.

아테네인들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점토 석판에 새로운 법 목록 등을 새겼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한 형태로 글쓰기가 자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시에서 특정 시민의 추방을 결정하는 투표를 할 때 추방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했다. 그리스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이름을 쓸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리터러시였다.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공공문서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점토 석판 등에 문자로 새겼다. 로마공화정 정치의 중심을 이룬 고대 로마의 성문법인 12표법은 상아로 된 판

1)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진 <미디어 리터러시> 2020 봄호에 실린 글을 소개합니다.

에 새겨져 로마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광장에 전시됐으며, 문자 해독을 통해 적시된 법을 따르기를 요구했다. 암흑기인 중세에는 사제나 제한된 사람들만이 리터러시를 갖고 있었다. 시민혁명 이후 근대 교육제도가 만 들어지면서 글 읽는 능력은 시민의 참정권 행사나 경제적 활동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매스미디어인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부터 출발한다.

서구에서 시민 국가가 등장하고 교육제도가 마련된 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시민 생활의 기본 능력으로 중요시됐다. 산업혁명을 거쳐 값싼 종이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능력과 문해력의 중요성은 지위와 권리의 표식이 됐다.

이처럼 대중매체 이전 시대에 사용된 리터러시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기능적 능력을 넘어서서, 특정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참여 조건이며 문화 향유의 전제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리터러시는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양식과 더불어 사회의 구조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개념이 확장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술 중심/보호주의적 접근

매스미디어의 등장은 리터러시 개념을 미디어에 종속시키거나 ‘미디어 이용을 위한 리터러시’로 개념 범주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텔레비전과 영화 등 전파 기술을 이용한 영상언어가 본격적으로 소비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자리 잡았다. 전파의 광범위하고 일방향적 영향력과 영상의 강한 생동감은 미디어의 강력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리터러시는 그 자체가 목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단적 개념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용어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리터러시인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기술이나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틀 안에 리터러시를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의 등장은 미디어 기술이 문화와 정치의 우위에 서는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보호주의적인 관점을 취한다. ‘비판적 시청 기술’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강력한 영상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1960~70년대 영화의 본격적인 대중화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텔레비전은 상업성과 폭력성, 선정성, 소비지상주의, 광고의 과도한 영향, 정치적 선동주의 등 부정적인 현상을 낳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비판적 미디어 비평주의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결합됐다.

초기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education with media)과 혼재해서 사용되곤 했다(Buckingham, 2008). ‘미디어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media)’의 관점에서는 비평주의가 결합돼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는 능력 즉, ‘텔레비전 시청 기술(Television Viewing Skill)’ 혹은 ‘수용 기술(Reception Skill)’,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텔레비전 이해 훈련(Television Awareness Training)’ 등과 같은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됐다.

"영상미디어가 전달하는 영상을 언어의 개념에서 어떻게 읽고 평가할 것인가" 즉, 미디어 리터러시의 또 다른 형태로 '시각적 해독'으로서의 리터러시(visual literacy), '비판적 TV 시청기술(critical viewing skill)'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이처럼 영상미디어 시대 리터러시의 보호주의적 시각은 미디어의 절대적 영향력과 원자화된 대중 간의 힘의 불균형이 만든 결과물이었다(황용석, 2016).

디지털 리터러시, with와 about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의 확산과 컴퓨터의 미디어화는 본격적인 상호작용 미디어 환경을 만들었다. 0과 1이라는 부호 체계로 작동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의 확산은 물질적 도구로서 미디어의 개념을 허물었고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개념을 이용자로 전환시켰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1990년대에는 '정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두 용어는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간단한 '사용 기술'의 의미를 갖는 기능주의적 정의였다. 정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진작되면서 이 개념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사서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제시한 정보 리터러시의 6단계 모형, SCONUL(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의 '7개 개념 기둥 모델(seven pillars model)', 브루스(Bruce, 1994, 2000)에 의해 제안된 '정보 문명인(An information literate individual)' 등 정보기술을 미디어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것의 사회적 활용을 결합하는 개념이 제시됐다. (Bawden, 2001).

컴퓨터공학과 교육공학에서는 컴퓨터 리터러시 개념을 교과과정에 결합시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다루었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비판적 해석 등에 대한 하위 개념을 설계해 나갔다(Shapiro & Hughes, 1996). 이런 학문적 시도를 이어 받아 길스터(Gilster, 1997)가 처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제시했지만, 그 후 10년간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갖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문적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Eshet-Alkalai, 2009). 실제 그가 사용한 개념이 기술 기반의 전자 리터러시(e-literacy)나 컴퓨터 리터러시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등 혼돈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후 이 개념은 마틴(Martin, 2012), 에셋-알카라이(Eshet-Alkalai, 2009)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층적인 개념 모델로 설계돼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길스터는 2006년에 《디지털 퓨전(Digital fusion)》이라는 저술을 발표하면서 정보가 융합되는 형태 속에서 요구되는 리터러시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했다. 바우덴(Bawden, 2001)은 이런 논의를 종합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도구적인 기술에서부터 비판적 인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하위 차원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본 기술, 디지털 정보에 대한 배경지식, 중심적인 능력들(읽고 이해하기, 창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평가하기, 지식의 재배열, 정보 활용능력, 수용능력 등)을 제시했다.

이후 이 개념은 마틴(Martin, 2012), 에셋-알카라이(Eshet-Alkalai, 2009)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층적인 개념 모델로 설계돼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길스터는 2006년에 《디지털 퓨전(Digital fusion)》이라는 저술을 발표하면서 정보가 융합되는 형태 속에서 요구되는 리터러시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했다. 바우덴(Bawden, 2001)은 이런 논의를 종합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

념이 도구적인 기술에서부터 비판적 인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하위 차원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본 기술, 디지털 정보에 대한 배경지식, 중심적인 능력들(읽고 이해하기, 창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평가하기, 지식의 재배열, 정보 활용능력, 수용능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따라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알고리즘 리터러시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리터러시가 조합되고 있다. 사실 이런 조합적 용어의 등장은 우리를 다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리터러시에 대한 기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자율적 관점 등 여러 학문적 관점 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들 각각의 차원을 비교하고 분리하기보다는 여러 개념들의 코디네이션으로 새로운 리터러시 용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터러시의 ‘올바른 목적 설정’ 중요

이 짧은 글에서 여러 관점을 소화하기는 어렵기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리터러시는 그 자체가 목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단적 개념임을 인식해야 한다.

당시 정치제도에서 요구하는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용어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리터러시인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기술이나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틀 안에 리터러시를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홉스(Hobbs, 2010)나 하지타이 등(Hargittai & Walejko, 2008)과 같은 시민주의적 접근이나, 젠킨스(Jenkins, 2006) 같은 참여적 융합문화론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유용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개념은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과 연결되고 있다(황용석·이현주·박남수, 2014).

둘째, 다양한 용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차원이 존재한다면, 1992년 미국에서 제시된 정의인 “접근, 분석, 평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콘텐츠 작성) 능력(ability to access, analyse, evaluate and communicate messages in a variety of forms)”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이 4가지 개념들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모형이 구성되고 있다. 가장 단순화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차원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 가능하다.

참고문헌

- Bawden, D. (2001).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57 No. 2, pp. 218-259.
- Bruce, C. S. (1994). Portrait of an information literate person. *HERDSA News*, 16(3), Nov., 911.
- Bruce, C.S. & Candy, P., eds. (2000). *Information literacy around the world: advances in programs and research*. Wagga Wagga, NSW: Charles Sturt University.
- Buckingham, D. (2008). Defining digital literacy: What do young people need to know about digital media? In Lankshear & Knobel (Eds.), *Digital literacies: Concepts, policies and practices* (pp. 73-85).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 Eshet-Alkalai, Y., & Chajut, E. (2009). Changes over time in digital literacy.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DOI: 10.1089=cpb.2008.0264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Wiley Computer Publications.
- Hargittai, E., & Walejko, G. (2008). The participation divide: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1(2), 239-256.
- Hobbs, R. (1998). The seven great debates in the media literacy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6-32.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코로나19와 미디어교육,
<뉴스읽기 뉴스일기> 하는 법



코로나19 개학 연기 대비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실’ 열고 화상채팅하며 학습 지도¹⁾

‘코로나19’ 개학 연기 대비 교육 공백 극복 방안 1 -고규환 (남곡초 남곡분교 교사)



코로나19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긴 겨울방학, 혹은 봄방학이 이어지고 있다. 벌써 두 차례나 새 학기 시작이 미뤄졌지만, 언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가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 초·중·고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등장했고, 학생들의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사이트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도 있다. 미뤄지는 개학에 대비한 온라인 교육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교사들의 입장도 난감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미리 계획해놓은 교육과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고, 끝도 없이 내려오는 공문과 지침들은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새 학년이 시작됐다. 원래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형 할인점과 문구점에는 설렘이 가득한 학생과 학부모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모두 마스크를 끼고 생필품만 얼른 사가는 사람들 몇몇만 보일 뿐이다. 학교에는 ‘새로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대하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함께 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첫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정성껏 준비한 편지는 인쇄조차 하지 못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언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 부득이하게 긴급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갇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등장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아이들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마냥 TV를 보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찝찝한데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라도 조금 시켜보긴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아이에게 학습을 시키기도 쉽지 않고 마땅한 교재도 없다. 원가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도 생긴다. 그나마 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는 양반이다.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 주도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한때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운영됐던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이다. 사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처음 접했을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학교에 내려진 공문의 힘을 빌려 이와 함께 민간 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교육 관련 업체들은 가지고 있던 유료 콘텐츠를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교육 관련 스타트업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료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업체도 있다. 정부와 업체들의 노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교사들

1)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진 <미디어 리터러시> 2020 봄호에 실린 글을 소개합니다.

이 직접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가장 안 좋은 대구·경북 지역 교사들이 만든 ‘학교가자’가 대표적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학교와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엠스쿨’이나 ‘e알리미’, ‘학교종이’ 등 학교가 사용하는 알리미 서비스와 클래스팅이나 밴드, 하이클래스나 카카오톡 등의 학급 SNS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이는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90년대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저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학습지를 등사하여 각 가정으로 우편 배송을 했을 것이다. 이제 공부할 방법이나 자료가 없어 공부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과연 학생들은 기대했던 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교사의 지도 과정 없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해당 서비스를 제시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큰 욕심일 것이다. 유튜브나 SNS, 게임으로 가득한 온라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동전노래방이나 PC방에 가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보내는 공문들이 무색하게 PC방, 노래방에 가는 아이들에 관한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이 주어진 지침에 따라 학습한다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수업일수가 줄어들지 않고, 단순히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것은 자칫 현재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학습 결과는 개학 후 운영될 교육과정 평가에 반영할 수도 없다. 개학 전에는 모든

학생에게 해당 서비스를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학급 모든 학생의 참여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활동들은 실제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미리 예습해보는 것에 불과하며, 평가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으므로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힘들기만 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온라인 교실

만약 잘 정리돼 있는 교과 내용의 영상과 기타 콘텐츠로 학생들이 수준 높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이상적 상황이 실현된다면, 그때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기에 온라인 학습이 학교를 대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과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학급 세우기’를 한다. 1년 동안 함께 지낼 서로를 소개하고, 지킬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래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습 수준을 진단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한 달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적응하게 되는데, 지금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들은 학습 콘텐츠만 일방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그저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이 얼굴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러한 공부 자료가 있으니 해보라고 권하는 과정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을 고민하다 떠오른 것이 ‘화상 회의’였다. 각각 다른 장소에 있어도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이 템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과 ‘만남’을 가지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시스템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과 '만남'을 가지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지 살펴보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은 아이들이 쉽게 설치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도 쉽고 학생도 쉬워야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해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찾다가 스마트폰에 딱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행아웃' 서비스를 선택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 개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각 가정에는 스마트폰이 하나씩은 있으므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사 입장에서 보아도 초·중등 교사가 활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교사 역시 스마트폰만 있어도 활용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컴퓨터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실 상황으로 볼 때 중등 교사는 대부분 웹캠이 탑재된 노트북을 활용하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초등 교사는 교실에 있는 실물 화상기와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설치가 쉬워야 한다는 조건은 해결됐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실제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더욱 고려해야 했다.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 아이들에게 이 행아웃 서비스를 설명하기로 했다. 화면을 녹화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명 과정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아이들에게 주소를 제공했다. 유튜브 영상을 본 '요즘 아이들'인 학생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던데요?'라며 나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 아닌 '학습'이다. 단순히 학습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학습'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알려주었다. 결국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설명과 활용 가능한 기기였다.

즐거운 온라인 교실 성공!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깔깔대고 웃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볼 수 없었던 친구들을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내준 글을 읽기는 하는 건지, 어떻게 지내는 건지 응답도 없던 녀석들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화면으로 만나니 교실에 있는 학생과 교사처럼 능동적으로 소통했다. SNS에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었지만 게시물이나 댓글을 달지 않았던 내용도 얼굴을 보니 말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름방학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SNS로 내준 숙제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 활동을 하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점이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봐서 좋았고,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형, 누나가 하는 화상 모임이 부러웠는지 기웃대는 동생들의 모습들도 귀여웠다. 멀찌감치 뒤에서 안 보는 척하며 슬쩍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재미 있었다.

우선 우리 반 학생들에게 기본 활용 방법을 알려준 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쉬운 과제를 내주었다.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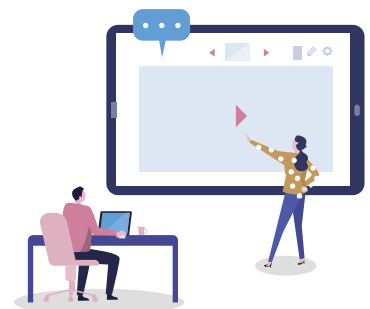
구글 행아웃 서비스를 이용해 얼굴을 보며 수업할 수 있는 ‘온라인 교실’을 열었다.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조작만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에서 학급 학생들과 만남 중인 필자(우)와 학생(좌). <사진 출처: 필자 제공>

는 ‘겨울방학에 지낸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활동으로는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기 영상을 보고 따라 한 뒤 서로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기, 게임형 학습 애플리케이션 함께 하기, 내가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자료 만들기, 집 안일하고 인증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모두 교과와 연관 있는 활동이지만, 성취 수준을 달성하고자 계획하는 교과 내용 그대로가 아닌, 현재 이 상황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긍정적인 래포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들로 준비했다.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 아닌 ‘학습’이다. 단순히 학습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고 나 또한 그렇다. 2012년 ‘스마트 교육’이 등장하면서 신기한 애플리케이션을 써보는 것에 만족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수많은 시도 끝에 그동안 내가 했던 것은 ‘스마트’였지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더 생각하게 됐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이 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개학 연기 대비 교육 공백 극복 방안 2 - 김지훈 (창진초 교사)



창진초등학교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창진홈스쿨' 홈 화면.
 <사진 출처: 필자 제공>

21

어떤 플랫폼을 만들까?

이제 이 콘텐츠를 어떤 플랫폼으로 제공할까? 플랫폼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플랫폼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연결형이다.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한 플랫폼에 들어가면 여러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있고, 교사나 학생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글 클래스룸이나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나 온라인 도서관 사이트처럼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개형이다. 체육이나 미술, 만들기 등 활동을 소개만 하고 실제 활동은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다. 두 유형 모두 어떤 활동을 하려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집에서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점이 아이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구글 사이트는 구글의 모든 도구를 현재 창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한 그곳에서 바로 스트리밍이 된다. 구글 설문지도 설문 사이트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사이트에서 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들은 그냥 이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영상도 보고 퀴즈도 풀 수 있다. 로그인도 복잡한 하이퍼링크도 필요 없다.

여기에 학생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퀴즈를 다 풀면 작은 상품을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걸 한 장의 사진으로 정리해서 학교와 학급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내했다.



이미 많은 콘텐츠와 플랫폼이 개발됐지만 아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콘텐츠의 기준은 첫째,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둘째, 아이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말자!



창진홈스쿨은 플랫폼 이동 없이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필자 제공>



'창진홈스쿨' 안내 포스터. <사진 출처: 필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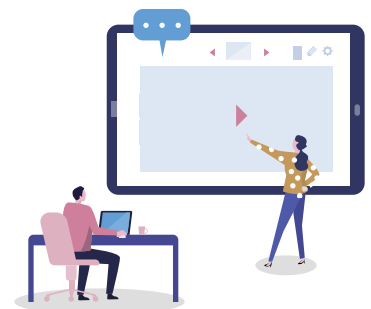
함께 하면 어떨까?

만들고 나니 꽤 쓸 만했다. 그리고 조금만 수정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버전, 학급, 학년 버전 등 선생님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래 교사 집단 특성 중 하나가 재능 낭비이고 돌째가 오지랖이다. 이 두 개가 만나면 베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베품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몇 커뮤니티에 공유 버전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자료들을 공유했는데 반응이 나름 괜찮았다. 덕분에 여기에 글도 쓰게 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달래야 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이 프로그램으로나마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창진홈스쿨’ 안내 포스터.<사진 출처: 필자 제공>



- 1) “충간소음 분쟁 80% 폭증, 코로나 공포에 ‘집콕’때문?”. 2020.02.27. KBS뉴스 백인성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9603>
- 2) <https://sites.google.com/view/changjinhomeschool>
- 3) <https://sites.google.com/view/quizhomeschool>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분석법(들)

확인사항		질문
분석	생산자	- 이 뉴스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성자가 언론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직업, 역할 등) 인가요? - 이 뉴스의 발행기관(언론사 등)은 어디인가요? - 생산자는 왜 이 뉴스를 만들었을까요? (뉴스가치)
	구성 요소	- 이 뉴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누구인가요? - 이 뉴스에는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는 6하 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나요?
	의미 구성	- 이 뉴스의 제목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뉴스에 포함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뉴스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나요?
	이용자	- 누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나요? - 이 뉴스에서 제기한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이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나요? 있다면 왜,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요?
평가	신뢰성	- 작성자는 믿을만한가요? (작성자 이름, 소속 등 명시) - 취재원은 믿을만한가요? (취재원 명시, 취재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 - 인용된 자료가 믿을만한가요? (검증된 자료 등) - 취재 과정은 믿을만한가요? (직접 취재, 사실관계 확인) - 작성자(언론사)가 보도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나요? - 추측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있나요?
	완전성	- 제목이 보도 내용을 잘 반영했나요? -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 - 사건의 배경, 원인, 대안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 한 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했나요? -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했나요? -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나요?
	유용성	-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됐나요? -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에 도움을 주나요?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01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 1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2 같은 내용이 미디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 3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든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 4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존중하는지 알아보세요.
- 5 미디어 속에 숨겨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02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뉴스나 정보, 메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2 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했는지 제작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 3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4 개인적 관심이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됐는지 고민해 보세요.

03 정보를 판별할 수 있나요?

- 1 자료가 믿을 만하지 살펴보세요.
- 2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만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 3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존중하는지 알아보세요.
- 4 정보에 포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04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1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는지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 2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 3 스마트폰은 내 삶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4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 안돼요.

05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올바른 대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2 비속어나 은어, 욕을 사용하지 마세요.
- 3 대화 창에서 공유한 여러가지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 자료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4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06 댓글을 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고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 2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댓글을 쓸 때 확인하세요.
- 3 댓글을 달 때 대화할 때처럼 예절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07 온라인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연령에 맞는 게임인지 확인해 보세요.
- 2 제한된 시간보다는 미션을 기준으로 게임을 종료해 보세요.
- 3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 4 게임이용시 비용이 발생할 때는 부모님과 상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08 유튜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나의 방문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 2 나의 연령에 맞는 영상인지 판단해 보세요.
- 3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 4 부적절한 콘텐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신고하세요.

09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저자(제작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 2 공정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뤄진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알아보세요.
- 3 다운로드로서 윤리와 규범을 지키면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해요.
- 4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10 1인 방송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메시지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 2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세요.
- 3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 4 나의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 5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박우연 선생님(금부초등학교)

1. 뉴스읽기의 '맛'특

<뉴스와 가까워지기>

- 어른용 신문은 어려워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신문(일간지)으로 뉴스읽기를 시작해보고, 고학년이 되면 차츰 어른 신문도 읽어봐요.
- 뉴스를 띄엄띄엄이 아닌 꼬박꼬박,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요.

<뉴스 맛보기>

- 1면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쪽 훑어봐요.
- 다양한 뉴스 중에서 내 눈에 띄는 주제, 관심 있는 뉴스를 먼저 살펴봐요.
- 반찬을 가려먹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처럼 뉴스 편식도 NO! NO! 다양한 주제를 접해봐요.
- 사진이나 만화, 광고 등도 많은 것을 알려주니 놓치지 않아요.

<뉴스 깊이 파헤치기>

- 하나의 뉴스를 6하 원칙에 따라 머릿속으로 정리해봐요.
- 뉴스를 읽을 때, KWL, 즉 K(knowledge:이미 알고 있는 점)-W(why:궁금한 점)-L(learn:새롭게 배운 점) 등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정해 표시하며 읽어요.
- 처음 들어보거나, 어려운 낱말을 만났나요? 그 낱말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뉴스 내용을 통해 먼저 예상해봐요. 사전이나 검색을 통해 뜻을 알아본 후, 나만의 낱말사전에 하나씩 추가하면 어휘력이 많이 길러지겠죠?

<뉴스 함께 나누기>

- '뉴스 읽어줄게, 잘 들어봐~' 공유하고 싶은 뉴스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들려줘요. 또는, 친구나 가족과 같이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 하나의 뉴스를 정해 꼼꼼히 읽고 따지면서 또 읽어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꿀꺽! 하기 위해서 읽은 내용을 보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요.
- 사실 같은 경우, 뉴스의 성격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잘 따져보고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해요. 친구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봐요.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박우연 선생님(금부초등학교)

2. 뉴스일기의 '멋'톡

<뉴스일기, 너를 알고 싶어!>

- 일기는 다들 알죠? 뉴스와 일기의 만남, 뉴스일기도 어렵지 않아요. 뉴스를 읽고 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뉴스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써요.
- 일기를 쓸 때, 하루 일과 중에서 평소와 별다른 일이 없어 쓸 주제가 없다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뉴스일기는 그 고민을 해결해주죠. 오히려 쓸 거리가 너무 많아 고민이 될 수 있겠네요.
- 하나의 주제를 정해 '주제 뉴스일기'를 쓸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뉴스들을 모아 주제 스크랩을 하고 일기를 쓰는 거죠. 요리사가 꿈이면 요리와 관련된 뉴스로 요리 관련 일기를, 축구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로 일기를 쓸 수 있어요.

<뉴스일기를 맛있게 남남>

- 뉴스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만의 알짜! 뉴스 이야기 보따리'인 뉴스일기장에 스크랩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질문거리 등을 풀어써요.
- 나아가 뉴스 주인공에게 상장 주기 및 인터뷰하기,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야기 상상하기, 뉴스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 및 다짐하는 뉴스 생활 일기 쓰기, 봉사 활동과 관련한 뉴스를 읽은 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기 등으로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어요.
- 뉴스 내용을 그림이나 만화로 나타내기, 동시에 표현하기, 뉴스 사진 말 주머니 채우기 등 줄글이 아닌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 다양하게 내 생각을 뽐낼 수 있어요.

<뉴스일기는 나의 생활>

- 뉴스와 나를 연결짓는 활동은 참 중요해요. 뉴스 내용을 나의 생활과 연결지어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에 꼬리물기를 해 봐요.
- 뉴스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 뉴스일기장에 정리할 수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01

미디어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1 어떤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생각해요.
- 2 미디어 콘텐츠를 누구와 공유하고 싶은지 생각해요.
- 3 콘텐츠 생산자는 믿음직한 사람인지 생각해요.
- 4 양쪽의 주장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 5 미디어 속 정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요.

02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 1 대중매체를 통해 미에 대한 선망과 모방심리를 심어줄 수 있어요.
- 2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보여주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평가 권리가 있어요.
- 3 이상적인 외모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미디어는 왜 만들어졌을지 한 번 생각해요.
- 4 미디어 메시지가 나의 주목을 끌기 위해 어떤 기법을 활용했는지 생각해요.

03

미디어 속
'정보 검색'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 1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검색할 수 있음을 이해해요.
- 3 검색어는 찾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 단어를 선택하세요.
- 4 정보를 검색할 때 다양한 검색 기법을 숙지한 후에 검색하세요.
- 5 활용한 미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요.

04

미디어 속 정보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단계별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해요.
- 2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이해해요.
- 3 다양한 미디어 정보자원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 4 검색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공유해봐요.
- 5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요.

05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 1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면 안구 질환이나 거북목 증후군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2 스마트폰 사용 '중요시간' 알람을 정해 '수면골든타임'을 지켜주세요.
- 3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 보며 대화해 보세요.
- 4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지켜요.
- 5 보행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가방에 넣어요.

06

온라인 게임에
대해 잘 이해
해야 합니다.

- 1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이해해요.
- 2 게임중독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 3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시간, 유형 등에 서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요.
- 4 게임 거래 전 상대방 전화와 계좌번호를 사이버 캡처로 조회하여 이진 피해 신고내역을 확인하세요.

07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1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따라서 내용과 거짓 정보를 올려도 검증 없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2 유료서비스 구입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요.
- 3 1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해 보세요.

08

가짜뉴스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 1 뉴스의 출처를 확인해요.
- 2 뉴스의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확인해요.
- 3 뉴스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실제 맞는지 판단해요.
- 4 뉴스가 제작된 날짜를 확인하여 오래된 뉴스를 재탕하거나 가공한 건 아닌지 확인해요.
- 5 상반된 입장을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해요.

09

온라인 상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 1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요.
- 2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도록 해요.
- 3 상대방이 싫어하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지 않아요.
- 4 인터넷에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지 않아요.
-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아요.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요.
- 2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 3 PC방 등에서 인터넷 로그인 시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4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아요.
- 5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세요.

11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1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 2 저작권법상 특정 영화 포스터를 비평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패러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저작자의 이익을 해지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돼요.
- 3 버스킹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 침해라는 점을 이해해요.
- 4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CCL 마크)을 미리 파악해요.
- 5 내가 만든 미디어 저작물에 CCL을 표시해요.

청소년을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심유석 선생님(이현중학교)

<적절한 뉴스 검색>

- 온라인 매체 : 주요 언론사 뉴스 분석 사이트 혹은 포털 사이트 내 뉴스 기사를 활용해보요.
- 오프라인 매체 : 종이 신문 혹은 월간지, 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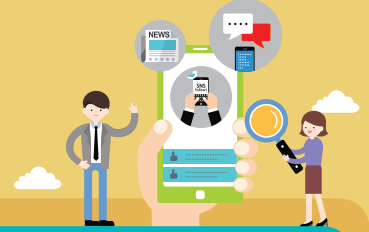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생각 정리 및 공유 방법>

- 뉴스 검색 후 기사를 읽고 간단한 내용을 요약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하세요. (기사 스크랩과 소감문을 작성하는 활동지를 함께 활용합니다.)
- 영상이 지원되는 기사 또는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뉴스를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 각자 수업 시간에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를 선택한 이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 뉴스 발표 후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한가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탐색하고 공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발표력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 많은 친구들이 모여 뉴스를 발표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공유할 수 있고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기 작성법>

-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 기사를 읽고,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 만평, 카드 뉴스, 4컷 만화를 활용해서 콘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추측해보기, 새로운 제목으로 바꿔 보기, 4컷 만화 이어 그리기 등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 기사를 읽고 Q&A나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 평소 관심 있던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고 일기를 쓰는 것도 꿈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20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01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신문 기사, TV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등과 같은 미디어 메시지는 우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딩을 건축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도면에 따라 만드는 것처럼 미디어 메시지 역시 누군가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처럼 보이는 뉴스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02

메시지는
어떤 언어적
기법이나
설득기법을
사용하고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신문이든,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이든 그 자체의 독특한 언어를 가집니다. 신문 1면의 헤드라인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며, 카메라가 피사체를 클로즈업하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음향과 시각 언어는 인간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요소로, 미디어 경험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잊게 만듭니다. 따라서 미디어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기법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3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왜 다르게
인식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미디어 메시지를 접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미디어 메시지와 상호작용 합니다. 누군가는 특정 메시지를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미디어 텍스트에 연령, 성, 교육, 문화적 기반 등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경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04

이 메시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배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미디어 메시지는 속성상 그 내용들이 구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텍스트 안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든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메시지를 구성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05

이 메시지는
왜 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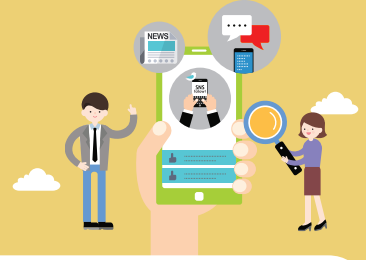
미디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워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익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이익을 동시에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동기들이 반드시 좋거나 나쁜지는 않지만 메시지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메시지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무고개로 넘는 허위정보 판별 가이드

- 1 원래의 정보를 누가 만들었나요?
- 2 메시지를 만든 곳은 신뢰할 만한 사람 혹은 기관인가요?
- 3 웹사이트 주소나 URL은 정확한가요?
- 4 콘텐츠나 게시물에 나오는 출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가요?
- 5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출처는 정확한가요?
- 6 나에게 SNS 정보를 보내주거나 나를 위해 포스트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요?
- 7 지금 보고 있는 게시물을 다른 일반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나요?
- 8 콘텐츠나 게시물에서 철자나 맞춤법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나요?
- 9 콘텐츠나 게시물이 약물이나 대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 10 해당 정보가 게시된 날짜가 최근 것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것인가요?
- 11 사진이나 이미지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나요?
- 12 사진이나 이미지는 원본인가요 아니면 변형된 것인가요?
- 13 격한 분노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인 내용인가요?
- 14 정보나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견인가요?
- 15 주장이나 관점은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 16 주장이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 17 해당 정보나 게시물의 내용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있는가요?
- 18 해당 게시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 19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상업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 20 내 스스로 해당 정보나 게시물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성인을 위한

쉽고 재미있게 뉴스일기 쓰는 방법



장두원 선생님(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찾아가는 대학> 진로부문 강사)

<뉴스 읽는 방법>

우선 오피니언면의 사설이나 칼럼은 사회 찬반논란이 있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성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신문사의 시각에 따라 사회를 보는 다양한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신문 혹은 뉴스의 칼럼과 비교해 보세요. 그 후 그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 핵심 내용을 스크랩하며 자료를 찾고, 팩트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주요 이슈 기사는 주로 1면을 비롯해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3,5,7면 기사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제면 기사는 세계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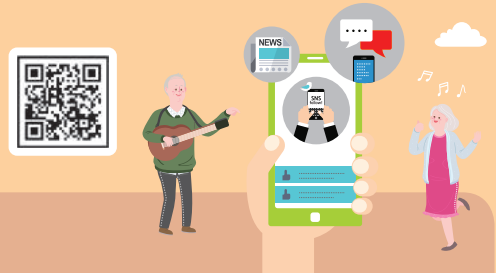
<뉴스 스크랩 방법>

먼저 신문에서 관심 있는 기사를 가위로 자른 뒤, 포스트잇이나 A4 노트에 기사 출처, 내용요약 및 느낌, 중요 정보를 메모합니다. 그 후, 메모한 것을 기사 뒷면에 붙여 파일 바인더에 끼웁니다. 2~3개월 꾸준히 스크랩한 후 같은 종류의 기사끼리 분류합니다. 분류한 기사들은 목차별로 파일 바인더에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연습들을 길들이면 논문이나 글쓰기의 기본 요건인 명료성, 정확성, 간결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글을 쓸 때 항상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기 작성법>

- 미디어 리터러시 계간지, 월간 신문과 방송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매달 발행하거나 계간지로 발행되는 잡지의 글들 가운데, 인상 깊은 글, 미디어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세요. 또, 한 주의 신문이나 뉴스를 본 후, 내가 생각하는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과 이유를 기록해보세요. 정리한 뉴스를 바탕으로 메신저나 오프라인 모임을 활용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과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친구, 가족과 함께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한 내용, 생각을 나눈 내용을 일기에 써보세요.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작성한 뉴스일기에 서로 댓글을 남겨주는 활동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공감되는 부분 혹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그 근거를 적어보세요.
- 인물의 경우, 인터뷰 기사들을 읽고 그에 대해 배워야 할 점과 얻은 교훈에 대해 일기문을 작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과 후를 기록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실버세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가이드



01 미디어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 ①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세요.
- ②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산에 위협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 ③ SNS(소셜미디어)에는 남이 봐도 되는 것만 올리세요.

02 미디어를 건강하게 이용하려면?

- ① 건강한 몸 : 눈, 목, 손목, 두뇌 건강에 유의하세요.
- ② 건강한 마음 : SNS(소셜미디어) 속 모습은 '보여주려고 올린 장면'임을 기억하세요.
- ③ 건강한 관계 : 사람들과 만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03 미디어를 매너 있게 이용하려면?

- ① 대화내용을 옮기지 마세요.
- ②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하세요.
- ③ 네티켓 10계명을 지키세요.

04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이용하려면?

- ① TPO(Time-시간, Place-장소, Occasion-상황)를 가려 사용하세요.
- ② 찌하는 사람의 초상권을 존중하세요.
- ③ 사실을 말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니 조심하세요.

05 미디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려면?

- ① 혈연, 학연 말고 커뮤니케이션 연줄을 만드세요.
- ②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SNS(소셜미디어)로 시작하세요.

06 뉴스나 정보,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하죠?

- ① 뉴스나 정보, 메시지는 '만든 것'임을 잊지 마세요.
- ②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 ③ "○○ 카더라"라며 퍼지는 정보를 섣뜻 믿지 마세요.
- ④ 고의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계세요.
- ⑤ 뉴스 편식을 피하려면 자동 추천 영상 대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07 댓글을 쓸 때 어떻게 하죠?

- ① 내가 쓴 댓글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예의와 품격을 갖춘 댓글을 쓰세요.
- ② 속도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천천히 확인하고 댓글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 ③ 악성댓글을 쓰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08 남이 만든 콘텐츠(음악, 영상, 그림 등)를 이용·공유할 때 어떻게 하죠?

- ① 대부분의 창작물 콘텐츠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 ② 합법적으로 사용하세요. 베토벤과 피카소는 무료입니다.
- ③ 사진 제공 사이트를 이용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라이선스, 캡처, 이름표시)
- ④ 내가 먼저 읽어보고 추천할 만하면 공유하세요.

< 네티즌 10계명 >

버지니아 셰어의 10가지 원칙*	현재에 적용
① 인간임을 기억하라.	상대는 나처럼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말에 기뻐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저 쪽에 있습니다.
②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사이버 공간의 윤리기준은 실생활과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얼굴 마주하며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실제로 못하는 말은 SNS에서도 하지 마세요.
③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가입한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가입한 모임의 특성에 맞게 말하고, 토론하고, 반응하세요.
④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정보를 올릴 때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남에게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⑤ 온라인에서도 교양인으로 보여라.	SNS에 올린 글과 이미지로도 그 사람의 성격, 생각, 윤리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⑥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전문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 감사를 표하세요.
⑦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SNS에 올린 글은 순식간에 지구 저편까지 전달됩니다. 말을 절제하기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기 전원을 꺼도 됩니다.
⑧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남의 일정, 동정, 사진첩을 시시콜콜 파고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합니다.
⑨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트위터 같은 SNS는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유명인 또는 권력자라면 그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은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됩니다.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버지니아 셰어(Virginia Shea) 교수가 제시한 네티켓 핵심원칙(The Rule of Netiquette)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지도 가이드



미디어 이해

1 미디어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 ▶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작동하는 원리와 콘텐츠를 분별 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 아이들이 친숙한 미디어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 ▶ 광고는 이익창출이라는 상업적 속성을 가집니다.
- ▶ 애니메이션에서 전달하려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 ▶ 웹툰은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 뜻하며 독특한 심미적 형식을 가집니다.
- ▶ 뉴스는 사회적, 정치적 속성과 이데올로기 및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 이용

3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허용시기를 고민해 보세요.

- ▶ 만 2세 이하 : 언어인지능력 발달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만 3세 이상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 ▶ 만 2~6세 이하 : 이용 규칙을 만들어 부모와 함께 습관을 잡아줍니다.
- ▶ 초등학교 이상 : 이용 약속을 스스로 정하고 과의존을 점검합니다.

4 미디어 활용 연령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 ▶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별 등급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게임은 제품마다 사용가능 연령이 다르고 섯다운제 등 제한이 있습니다.

5 공교육에서 지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 가져주세요.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을 성취기준에 맞추어 교육합니다.
- ▶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미디어 일기 쓰기를 하면 좋습니다.



미디어 소비

6 미디어의 순기능을 알고 사용하게 해 주세요.

- ▶ 미디어의 순기능에는 환경감시, 상관조정, 사회유산의 전수, 오락 기능이 있습니다.
- ▶ 다양한 SNS를 사용할 때 정신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7 미디어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미디어로 인해 세뇌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 보여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막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등 비판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 ▶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미디어 생산

8 미디어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을 알고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 ▶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생산하도록 지도합니다.
- ▶ 가짜뉴스나 낚시성 기사를 만들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 ▶ 타인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 등의 법적인 문제에 주의하도록 지도합니다.

9 미디어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 ▶ 저작권은 뉴스, 그림, 사진, 일기, UCC 등 모든 저작물에 주어집니다.
- ▶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 미디어로 미래를 탐색해 볼 수 있으며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 미디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으며 미래 유망직업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 미디어 상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유튜브 등 미디어와 관계된 직업 등을 통해 직업윤리를 생각하게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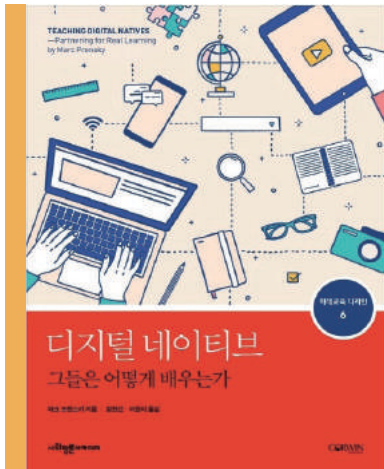
2020 미디어교육 사업 한눈에 보기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연간 사업

사업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	오프라인 연수사업				디지털 육아 학부모 연수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수(127) 도서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
	온라인 연수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유·초·중등)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교사학습공동체 공모	교사학습공동체 선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년제, 평생교실) 운영			
	KPF 대학 강좌 지원 사업	1학기 KPF 대학 강좌 사업 워크숍	1학기 KPF 대학 강좌 운영			1학기 KPF 대학 강좌 종료 2학기 KPF 대학 강좌 모집 공고	2학기 KPF 대학 강좌 선정 발표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공모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선정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 모집 공고	지역신문활용교육 선정	지역신문활용교육 보조금 교부		
 인프라 구축 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봄호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여름호 발간	
	미디어교육 효과조사			미디어교육 효과조사(운영학교 효과조사, 사업만족도 및 품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				
	고등학생용 인정교과서 개발		교과서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출판사 선정 조달청 공고 및 계약	교과서 집필		
 행 사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 접수 및 심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개관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 시상식 공모전 일기장 배부		

사업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	오프라인 연수사업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수(12기) 도서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직무연수	디지털 육아 학부모 연수				
	온라인 연수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사연수 과정(유·초·중등)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교사학습공동체 결과 발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제, 평생교실) 운영				학교 및 평생교실 지원 사업 종료	
	KPF 대학 강좌 지원 사업	2학기 KPF 대학강좌 사업 워크숍	2학기 KPF 대학강좌 운영				2학기 KPF 대학강좌 종료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료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문사 1일기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료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미디어교육 시설 단계 지원 사업 종료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 사업 종료		
 인프라 구축 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가을호 발간			<미디어 리터러시> 겨울호 발간	
	미디어교육 효과조사	미디어교육 효과조사(운영학교 효과조사, 사업만족도 및 품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사업	미디어교육 온라인 수업지도안 개발					
	고등학생용 인정교과서 개발	교과서 집필		인정 승인 심사 및 수정, 보완			
 행 사				저널리즘 주간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체커톤) 국제 MIL 주간 및 대표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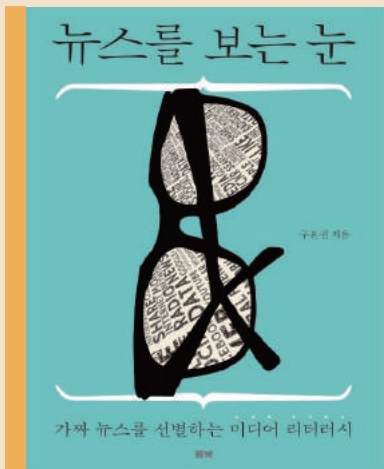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글 마크 프렌스키 / 정현선·이원미 옮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래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의 저서.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대된 반면, 정작 이들을 가르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이 책은 학생과 ‘파트너가 돼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인 실행 지침과 사례로 풀어내고 있다.



뉴스를 보는 눈

글 구본권

저자가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 기자,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으로서 일하면서 쌓아온 농축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언론의 본질과 시민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책이다. 언론이 무엇이고 좋은 보도란 어떤 것인지, 언론의 힘은 어디까지이며 특권을 이용해 비뚤어진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인지 짚는다. 이를 종합해, 올바른 언론과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안내한다.



생각이 크는 인문학

글 김준경 / 그림 이진아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이 시급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할까? 미디어오늘에서 미디어의 변화와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으로 취재해 온 김준경 기자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디지털 시민의 소양을 이야기한 책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뉴스 믿어도 될까?

글 구본권

미디어 연구자이자 일간지 기자로 25년 넘게 일해온 언론인이 청소년용으로 쓴 미디어 리터러시 책이다.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지만 가짜 정보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현명한 미디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디어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뉴스와 언론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어내는 데 필요한 역량을 다뤘다.



가짜뉴스의 시대-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글 케일린 오코너-제임스 오언 웨더럴 / 박경선 옮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의 시대, 거짓 정보가 우리 인간의 신념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하는지 다룬 책이다. 저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가 누구와 알고 지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오염된 진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어린이를 위한)

글 권혜령, 김광희, 송여주, 오은영, 이경혁, 최은옥, 홍완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초·중·고 선생님들과 미디어 전문가가 뜻을 모아 탄생한 책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 속에 스며든 뉴스, 광고, 영화, 웹툰, 게임, 인터넷, SNS, 유튜브 등 여덟 가지 미디어에 대한 풍부한 예시와 설명을 통해 미디어의 특징을 확실히 전달하며,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소통 방식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본문 뒤에 덧붙인 다양한 활동 문제를 풀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미디어의 활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수상 대표작 모음



이사장상



<15년의 습관, 그 꾸준함의 결실>

김라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상소감

이사장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저는 공모전에 참여하기 전에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기사를 읽고, 글을 쓰는 ‘나만의 칼럼 노트’ 작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원생인 현재까지 15년간 1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마다 작성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작은 일이 모여 큰 성취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칼럼 노트’는 제게 뉴스를 접하고 스스로 표현하는 역량 이상의 것을 가져다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저 혼자 알고 있기보다, 시사 이슈에 능통하고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 시민들과 공유하여 분별 있는 뉴스읽기를 위한 방법들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 분별력’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질문’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 뉴스 분석법’도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도였기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기가 쌓일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나만의 칼럼 노트’의 네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세상에서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뉴스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 써내려갈 ‘칼럼 노트’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제시한 ‘뉴스일기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몇 주에 걸쳐 일기를 쓰면서 저의 생각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한 내 생각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지식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는 수단임을 깨닫게 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개인 어린이 저학년-금상



<파랗게 물든 뉴스와 나의 이야기>

송아연
금부초등학교2학년

수상소감

'뉴스일기'를 시작할 때는 좀 힘들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다는 기분이 줄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에 뉴스일기를 시작할 때 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뉴스일기를 잘 써도 상을 못 받을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뉴스일기를 쓰는 걸 보며 점점 '난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열심히 더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보며 저도 열심히 썼는데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일기를 통해 배운 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많이 힘들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었는데, 조금씩 읽다 보니 점점 쉬워 보였습니다. 내용이 짧은 것은 더욱 읽기 쉬워서 이해도 빠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뉴스는 어른들이 읽는 뉴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 신문을 통해 더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통 일기는 한 가지 형식으로만 쓰는데 뉴스 일기는 일기, 동시, 편지, 상장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원기)

제목: '세계의 사람들은 왜 피부색이 다른가'

전 세계 사람들은 왜 피부색이 다른지 궁금하
 다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추운 지역에
 는 사람도 있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세계의 사람들이
 옷과 피부색이 다른지?' 그림을 봐 어떤 갈색
 피부에 반팔 옷을 입은 친구도 있고 짧은 옷
 은 친구가 보인다. '추운 친구가 부엌을 너무
 워서 떨고 있어서 너무 ~ 추게 보인다.' 반
 옷을 입고 있는 친구는 노래 부르면서 춤추
 있는데.



⑤

(원기)

제목: '카메라로 찍으면 안돼요'

중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하는 모습
 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는게 부끄럽고
 놀랐겠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싫고 불안할
 것 같다. 중국의 학생들은 왜 수업
 하는데 상사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
 는 걸까. 궁금하다. 선생님을 돕기 위
 해서 설치 했지만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⑧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원기)

제목: '나도 북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나도 북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북한 아이들
 을 만나면 서로서로 북한어남한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북한의 말투를 쓰고 싶다. 부산
 의 말투가 북한의 말투랑 비슷한 거 같
 다. 난 북한아랑 부산 둘다 가고 싶은
 둘다 가면 짐, 그림고 가까운 북한부
 가고 싶은데... 그런데 북한에 가
 지금 못 가는데 그냥 부산을 더 먼
 갈까? 북한은 이산가족들이 많은데,
 만년~



③

(원기)

제목: '나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초등학생 희망 직업, 의사, 과학자
 유튜브들 처럼 멋진 일을 하고 싶는데
 나는 커서 훌륭한 크리에이터나 의사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 초등
 학생의 희망직업 1위에 '운동선수'가
 2년 잇달아 올랐던거 같다. 남자들
 여자들 다~ 운동선수가 될 수 있
 는 거 아닌가? 중학생 중에서 뷰
 가 과사고 고등학생에서도 1위가 똑
 같이 과사다. '왜, 중학생 고등학생들
 은 왜? 과사가 되고 싶어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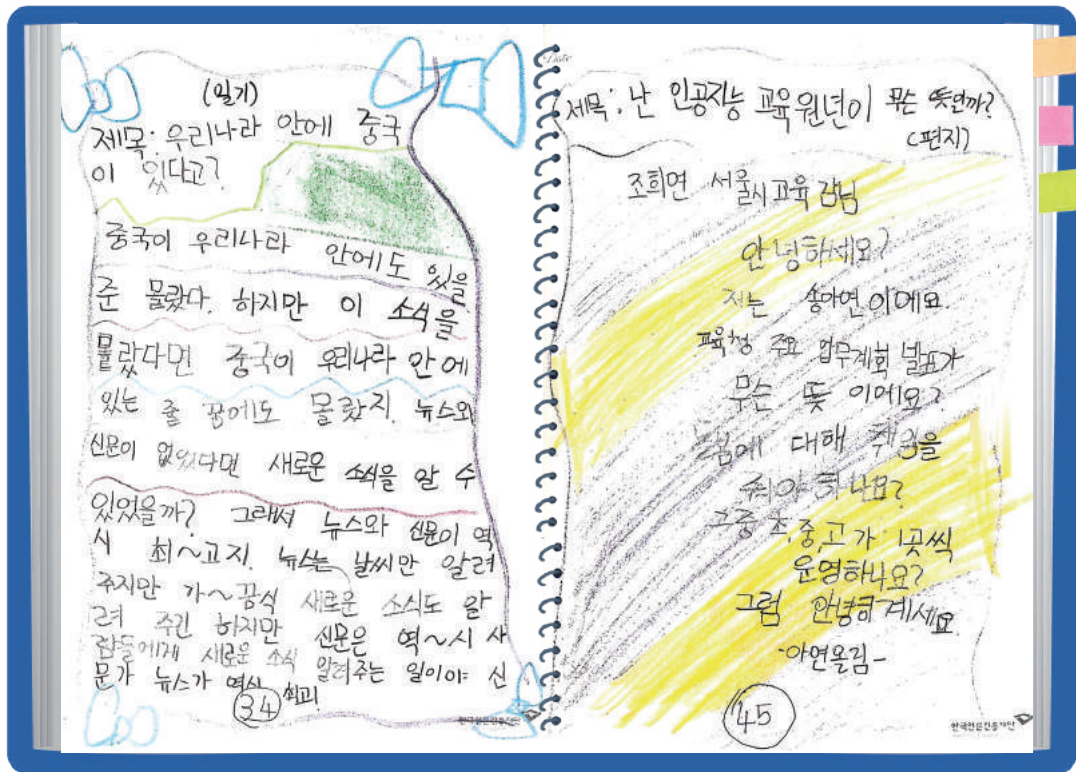
③2



왼쪽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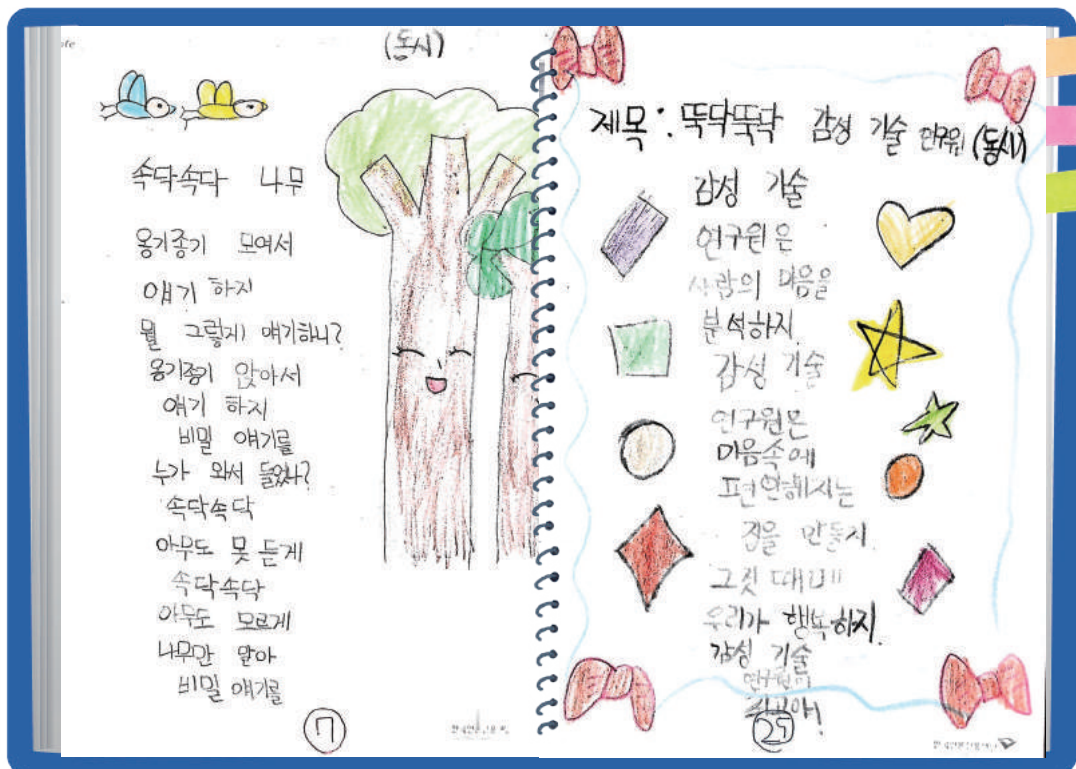
오른쪽기사



왼쪽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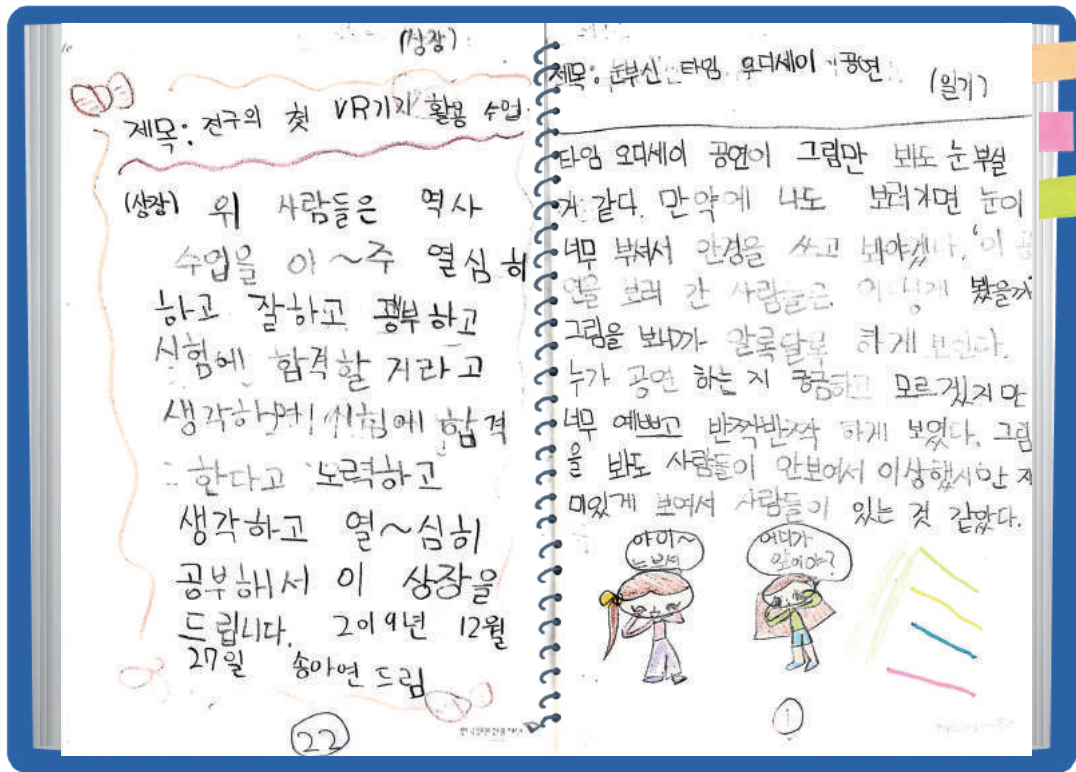
오른쪽기사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뉴스일기를 잘 쓰는 아연이만의 비법~

처음에 뉴스일기를 쓸 때에는 좀 떨렸지만 쓰다 보니 떨리는 마음이 줄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줄어드니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뉴스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뉴스를 읽고 느낀 점을 여러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고, 꼭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신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을, 중요한 낱말에는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셔서 꼼꼼히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더 쉽게 보였습니다. 또, 신문을 읽고 느낀 점을 다양한 형식으로도 쓰거나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쓰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뉴스일기를 매일매일 꾸준히 쓰고, 가능한 자세하게 드러나게 쓰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도 뉴스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매일매일 쓰다 보면 점점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어린이 저학년-은상 대표



<태균이의 뉴스일기>

임태균
동신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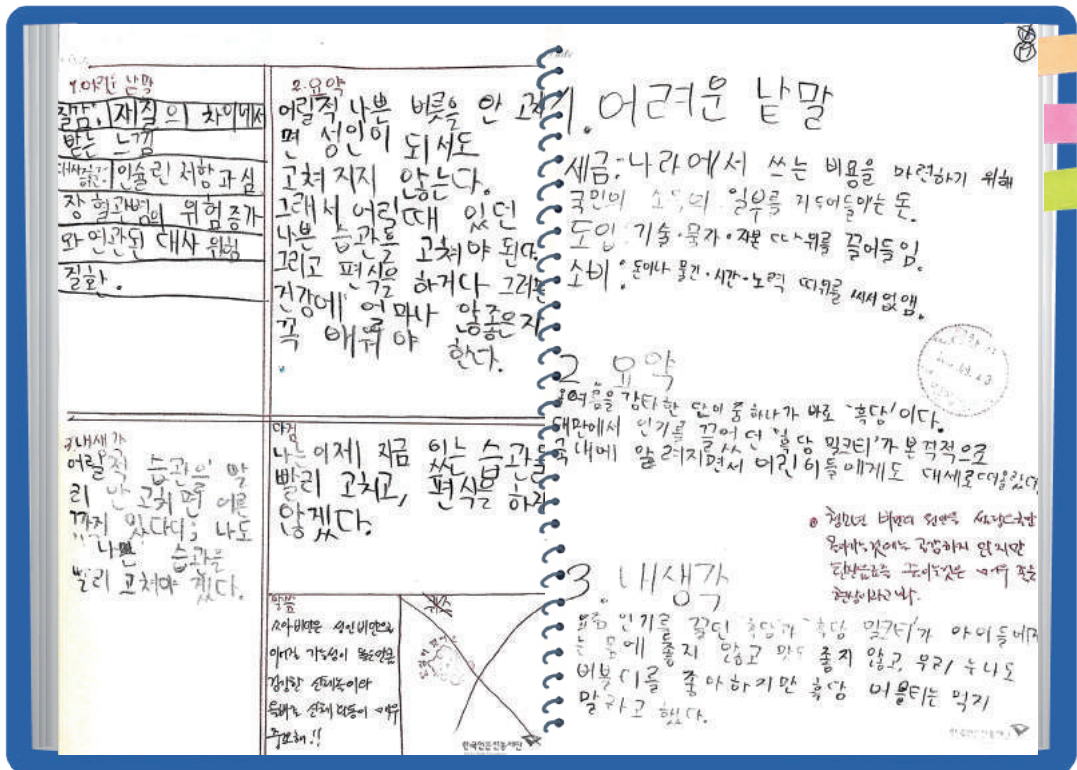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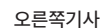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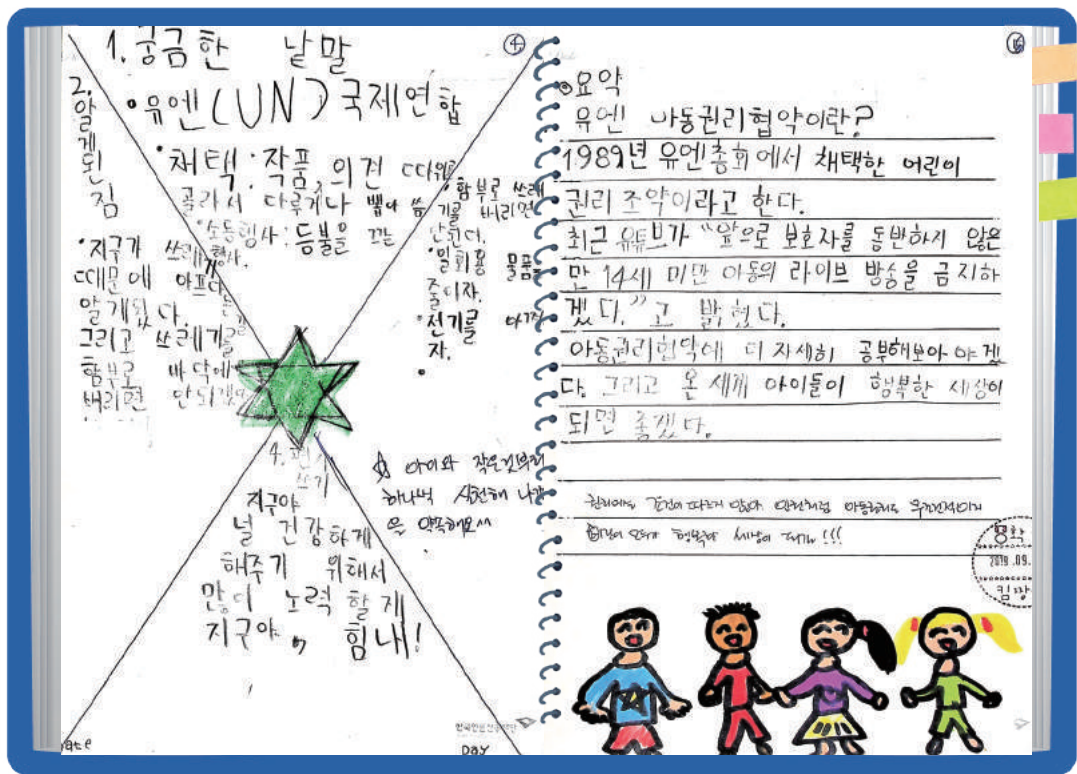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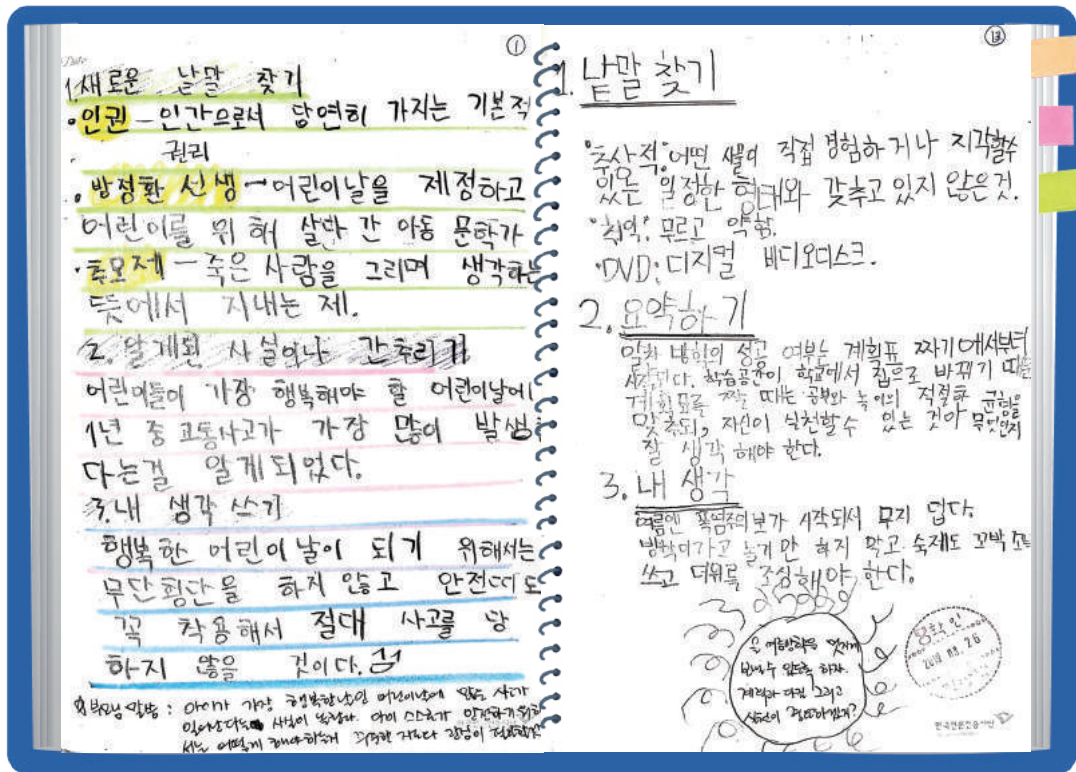
평소 저희 부모님은 저녁 8시만 되면 TV 뉴스를 함께 보자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뉴스일기를 쓰게 되면서 뉴스를 통해 각종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그날 그날의 화젯거리를 알 수 있었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일기를 읽어주시고 은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개학을 못하고 있지만, 3학년이 되어서도 집에서 엄마, 아빠와 뉴스일기를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바이러스’, ‘우리나라 24절기’, ‘제철 과일은 무엇인가?’, ‘3.1절 태극기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인 어른들을 놀라게 한 10대의 외침’ 등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주제들을 뜻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주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일으킨 10대 환경운동가 톤베리의 기사였습니다. 전세계 수만 명의 저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등교 거부 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은 어른보다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고 난 후 저도 전보다 자연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1. 뉴스 선정 : 최근 기사 중 학교 교과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주제의 뉴스를 스크랩합니다.
2. 읽기 : 한자와 모르는 우리말, 영어가 나오면 형광 펜으로 표기를 하고 사전으로 뜻을 찾으며 이해했습니다.
3. 분석 : 해당 뉴스 기사가 사회, 환경, 교육, 정치 중 어느 분야인지 분석했습니다.
4. 생각 정리 : 해당 뉴스가 왜 일어났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5. 일기 작성법 : 크게 3가지로 읽기, 내용 요약, 내 생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 이해하고, 주제를 간추려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관점에서 기사를 바라보고 나 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6. 미디어 리터러시 : 뉴스일기는 영상 콘텐츠뿐 아니라 활자화 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전 방향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금부초등학교 2학년 김지한>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삼육초등학교 3학년 신지민>

Year: 2019 6.18

코끼리들의 슬픔

2019.7.10

궁명조기는 생명의 물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개인 어린이 저학년-동상 대표



<박현진의 뉴스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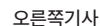
박현진
동신초등학교2학년

수상소감

제가 쓴 뉴스일기장이 개인 어린이 저학년 동상 부분에 당선되어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더 열심히 참여해서 꼭 금상을 받고 싶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를 읽고 일기를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아프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세상에 신기한 동물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평소에는 어렵고 딱딱한 뉴스였는데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통해 그림책을 보듯이 재밌게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53

개인 어린이 저학년-동상 수상작

<동신초등학교 2학년 김혜윤>

1. 어려운 낱말

- 탄소배출량
- 자연산
- 기업
- 전멸

2. 새로 알게 된 것

- 지난달 22일이 지구의 날이었다
- 다음 5월 22일은 환경의 날이다

3. 내 생각

- 우리가 지구에 오염시켜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 난 전기 자동차를 좋아한다

4. 편지 쓰기

- 지구야 우리가 오염시켜서 미안해 TT
- 우리 때문에 북극곰이 죽게 생겼어 TT

원작기사

오른쪽기사

<금부초등학교 2학년 손지우>

제목: 생활 하기 편한 컴퓨터

인터뷰 1. 컴퓨터를 공부하게 편하십니까? 네 O

2. 핸드폰은 그럼 싫은가요? 아니요 X

그건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가 더 편하네요. 그럼

3. 컴퓨터가 편하세요 핸드폰이 편하십니까? 컴퓨터요

나의 생각

나도 핸드폰으로만 했지만

이제 나도 컴퓨터로 해볼게다.

큰 한 난

제목: 노아 죽지마!!

노아 광우병 패배 죽는다. 광우병이 얼마나 위험하면 노아도 죽을게요. 인가 광우병도 있잖아. 사슴도 사슴을 한테 노아 죽는걸 알았고 사람도 죽는걸 알았다. 노아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노아 죽지마!!

원작기사

오른쪽기사

개인 어린이 저학년-동상 수상작

<삼육초등학교 1학년 신지원>

2020.1.28(화) 38
뉴스일기 마친소감
뉴스일기를 쓰니까 도움도 된다. 느낀
도 쓰고 신문기사도 잘 알수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 다음에도 또 하고
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마
리터시'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나
면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읽고 신문
기를 가족과 함께 쓰는 거다.
그러면 더 재미있게 할수있을 것
같다. 그래도 뉴스일기가 재밌고
알게된 단어가 많았다. 다음에
도 뉴스일기로 해도 될 것 같
다. 다음에 꼭 또 할거다. 왜냐
면 재밌기 때문이다. 끝

2020.1.28(화) 38
뉴스일기 마친소감
뉴스일기를 쓰니까 도움도 된다. 느낀
도 쓰고 신문기사도 잘 알수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 다음에도 또 하고
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마
리터시'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나
면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읽고 신문
기를 가족과 함께 쓰는 거다.
그러면 더 재미있게 할수있을 것
같다. 그래도 뉴스일기가 재밌고
알게된 단어가 많았다. 다음에
도 뉴스일기로 해도 될 것 같
다. 다음에 꼭 또 할거다. 왜냐
면 재밌기 때문이다. 끝



기사 본문

<동신초등학교 2학년 이민석>

어려운 날 말
라이프
대상화
조치
동바
사레
노기점
저에게
아이들이 행복
해지기위해서
아동의 권리
가 필요하다

새로 알게된 점
아하~ 권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요구할수
있는 힘을 알
다.

어린이의 모습
지키기위해서
그런거라



HAPPY LOVE

부모님 말씀

이런데에도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어려운 날 말
공해
되는피해
종자돈
새로 알게된 점

1. 비록 예뻐보이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해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고 한다
2. 은행나무의 잎은 단로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3. 한 명에 약국의 주인은 결핵질에 포균된 '클라리스'에
몸이 아프다.

노기점

은혜나. 내생은 내생을 지
리해한다. 공해는 공해로
내부 이별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은혜나. 내생은 내생을 지
리해한다. 공해는 공해로
내부 이별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 말씀 쓰기

내몸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큰
결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현실이니까요.
앞으로 아기가 없는 이유로는
근거를 많이 찾아 보았을
한는 바람입니다.

부모님 말씀 쓰기



원쪽기사



오른쪽기사

<금부초등학교 2학년 정아성>



제목: 종이는 소중한데요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1~4까지 있습니다. 1번재는 숲에서 베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2번재는 나무 조각에 약품을 넣어 섬유를 오스섬유를 뽑아 펄프를 만든다. 3. 펄프를 물에 풀고, 세척하여 물에 부려 물을 제거한다. 4. 펄프를 다시 물에 부어 당한다. 마지막 4번은 초지기로 펄프를 짜서 펄프를 짜고 물러지며 물이 빠져나간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종이 만들어진다. 종이도 우리가 쓰는 종이를 조금이라도 아껴 써야겠다.

제목: 미세먼지가 사라져 (편지쓰기)
미세먼지가 사라져 너도 많이
사람들 아프고 내가 좋아하는 중국도
못하고 답답한 마스크도 써야해 제
발 우리 지구가 깨끗하게 만들어
내가 고맙게 느껴져 다음에는 오지
말아줘!! 으음 사람들이 많이
중국에도 갔어.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힘들어져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금부초등학교 2학년 정주원>



제목: 불쌍한 북극곰

요즘에 너무 더워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겨울이 와서 얼음을 조금
얼려주었으면 좋겠다. " 그런데 북극
은 춥지 않을까? 궁금하다.
북극곰아 파이팅!
다음에 또 보자~

제목: '멍쥬라! 옐로카펫!'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옐로카펫이 있으면 차들이 멈추
거나 속도를 줄여서 지난 5년간
해마다 1만건 이상이 90% 줄어
든다 한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서 예방되고 있다 한다. 그리고
9세 이상은 옐로 카펫이 있어야
교통사고가 덜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옐로카펫
을 쓰는 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개인 어린이 고학년-금상



<뉴스로 꿈꾸는 또 다른 세상>

김민주
주감초등학교 6학년

수상소감

제 좌우명은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열심히 작성한 일기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뉴스를 시청하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뉴스읽기 뉴스일기>공모전을 추천해 주신 학교 선생님과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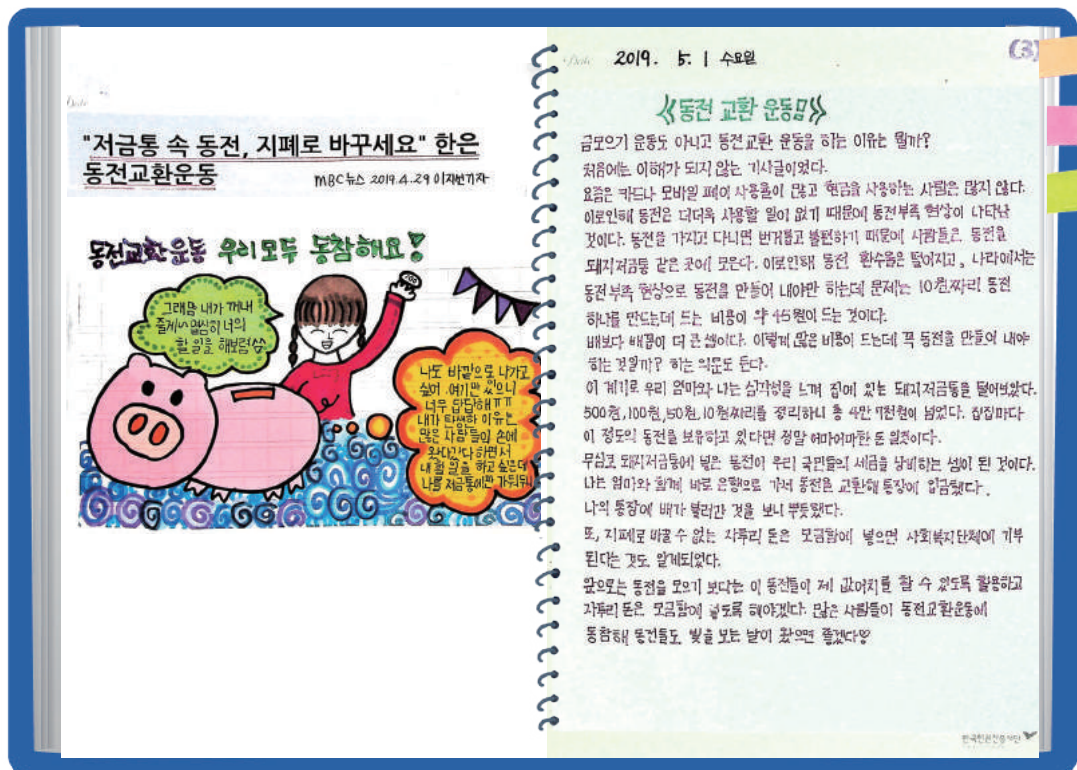
이번 <뉴스읽기 뉴스일기>공모전을 통해 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덕분에 내 주변과 사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글 솜씨도 늘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고 토론하며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기사 본문

2019. 8. 18 일요일

(돌아오지 않는 양념) (34)

육색사건으로 뉴스정리

사실상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양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현황상
양념이 있는 너무 더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양념을 나눠주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양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부작용
양념을 받은 시민들이
제자리에 다시 돌려
놓지 않아서 두 달만에
75% 이상의 양념이
사라졌다.

경로상
시민들을
위해서 양념을
제공하는데 양념이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다
자신의 지름 양념을 쓸 수 있는 아구라
앞에 사람이 제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
이라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이다.

특징상
돌아오지 않는 양념에 대한 해결책
양념을 대량으로 관리하는 관공리인 한
본 계곡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양념을 대량으로 관리하는 관공리인 한
본 계곡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양념을 대량으로 관리하는 관공리인 한
본 계곡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경로상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서울시가 양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양념이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다 자신의 지름 양념을 쓸 수
있는 아구라 앞에 사람이 제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특징상
오늘의 일상은
종교를 통해 양념을 나눠 주는 시민
들이 시민들께 양념을 나눠 주는
가장 먼저, 모자를 쓴 부부, 선물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는 여학생들을
시각하고 있다. 어떤 시민들을
관공리인 한 본 계곡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양념을 나눠주고 있다.

2019. 9. 29 일요일

44

PMII로 뉴스정리하기

<음주운전은 말입니다?>

⇒ Plus + Minus + Interesting

P 긍정적인 점

음향도 시민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노력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과
그 친구들의 노력으로 인해 음향도 법이 생겼다. 그 덕분에 음주 운전이 줄어든 사람들과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적어져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삼각형을 알고, 음주 운전은 법과 아닌 행위임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본능이다.

M 부정적인 점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할 때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불러 내다보면 생명을 잃고 있다. 아무리 음향도 법이 생겼어
되고 있어도 아직도 운전할 때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불러 내다보면 생명을 잃고 있다. 아무리 음향도 법이 생겼어
되고 있어도 아직도 운전할 때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안일한

I 흥미로운 점

작은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친구들이 발견하고 나서 법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줬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대단한 것 같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을
기뻐하고, 구경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I 내용 정리

음향도 시민이 사고로 인명피해를 받은 양근지 씨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친구들은
친구의 죽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두들긴 끝에 음향도 법도 만들어지고, 생체인화기
봉인도 만들어져 수업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는 다행히 줄었지만, 여전히
이런 무서운 사고도 일어날 것이다. 나만의 조금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사고로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음주운전은 누구도 용서해줄 수 없는 범죄로 안 될 큰 죄악인 것이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2019. 10. 6 일요일

46

노인들이 마음편히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꿈을 가다보면 빠지는 늪은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폐자가 더 이상
재활을 받지 못, 결국으로 수습되지 않아 가족이
급격하여 더 이상 폐자를 잡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열심히 폐자를 모으고, 하루 끝에도
안 되고, 무거운 수레를 끌어야 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많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노인들이 쉽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
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1위라는 실정에서
인도있었다. 이렇게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1순위
3위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가 힘들게 공부시키고, 나이가 든 부모를
책임지고, 부양하는데 마땅한 일이 없었지만, 요즘 같은 학과제 시대엔 이를 버리는 자식들이
 많다. 특히노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생활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자나
 버린 박스를 고집하는 한다. 하지만, 이때도 폐자 가격이 떨어지면 폐자를 유지하기 힘들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버려진 상자나 폐지를 주유원 거리로 개조해지고, 생활비도 받고,
 1석 2조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위기는 박스를 줄여 나가는 것을 볼 때면 안타
 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또 다른 기사에는 뉴스에서 폐지 줄기는 불붙고, 차고에서는 위험해 돌돌돌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들은 따뜻한 시선과 관심, 조용한 환경을 보내야
 할 것이다. 또,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사는 분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 10. 16 수요일

49

<남자, 여자 모두 평등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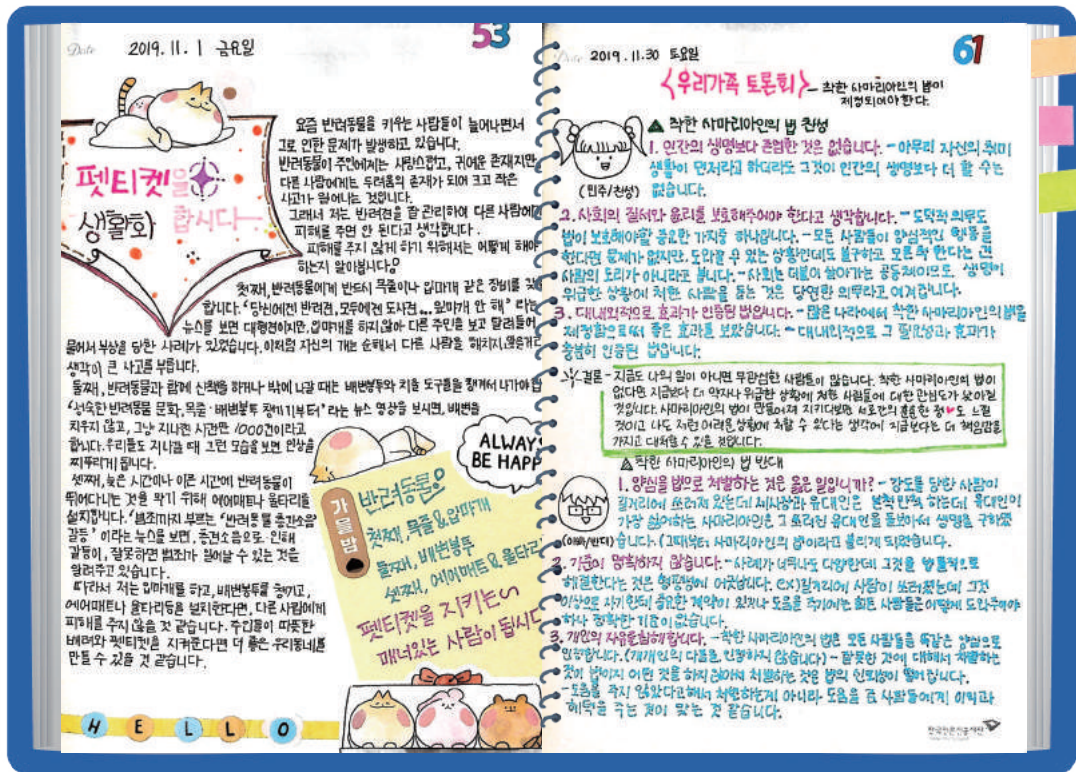


<양성평등 표어>

남녀평등을 마음속에 새기고
남녀차별을 대리속에서 지우자!



왼쪽기사



원작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매일 뉴스를 조금씩 시청한 후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제목을 <뉴스일기 뉴스일기> 아이디어 노트에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중 나의 경험과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사를 골라 뉴스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생인 저에게는 정치면은 어려워 주로 사회의 이슈나 사건, 사고 등을 다루었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과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개인 어린이 고학년-은상 대표



<김규희의 뉴스일기>

김규희
주감초등학교 6학년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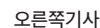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은상이라는 높은 상을 받아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 수상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은상이라는 정말 높은 상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당선된 것을 정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뉴스일기를 쓰면서 많은 배운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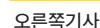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일기를 쓸 때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읽고 보면서 정리하여 썼습니다. 일기를 작성하면서 예전에는 많이 보지 않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것이 물론 지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때로는 놀라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즐겁게 신문을 읽다 보니, 어느새 신문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또 모르는 뜻을 많이 찾아보면서 알게 된 단어도 많아지고, 뉴스를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어 쉽게 일기를 작성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왼쪽기사



2020년 2월 1일

중서 신종 코로나 첫 경인환 의사 사망

KBS 뉴스
정영은 기자



중국 우한에서 퍼지고 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다가 당국에 폭력적 처벌을 받았던 의사 리완량(34)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새벽 2시 58분 폐렴 증세로 숨졌고, 현재는 돌보다가 최근 폐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P 화제인 리완량 **M** 사망을 알린 의사가 무릎에 코로나 예방방구 착용하고 신종코로나도 인 의사들을 대치할수있었다 한 사망자가 더 늘었다.

I 비슷한 병인 '사스'는 무엇일까? 이의사는 어떻게 코로나를 알았을까?

I 리완량 박사는 한 교원자가 숨지니 광항이 안타깝고 의사가 숨지니 사망자 1명은 더한 의사들 1명더 죽었다

2020년 2월 1일

한 걸음 더



사스는 어떤 질병은 무엇일까? 네이버 지식백과

2002년 겨울, 홍콩 거의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편일 느낌을 통해 바닷 **사스**는 감염병이 생겼다.

사스(SARS)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줄임말이다. 사스에 걸리면 심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숨쉬기가 힘들고 심한 폐경으로 발전해 죽을 수 있다. 사스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라 치사율이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스는 2002년 중국 남부의 광둥 지방에서 처음 생겨났다. 821명에서 8000여 명과 714명이 사망했다.



원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저는 *P, M, I, I를 통하여 '긍정, 부정, 알고 싶은 것, 내 삶과 비교' 4가지 영역으로 표를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긍정적인 점이나 좋았던 부분, 좋을 것 같은 부분을 P에 정리하였고 M은 안 좋은 점, 위험한 점 등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는 그 기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알고 싶은 모르는 단어의 뜻 등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 I는 내 삶과 비교하여 '나는 ~어땠다' 라는 형식으로 내 경험을 비교하며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다음 장에는 '한 걸음 더'나 '더 알아보기'로 몰랐던 단어 혹은 더 추가된 정보를 적거나 해당 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글로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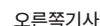
*PMII기법

-Plus(긍정) -Minus(부정) -Interest(흥미) -I(나의 삶)

<애향초등학교 4학년 이윤서>

오른쪽기사

<갈곡초등학교 5학년 정은랑>



개인 어린이 고학년-동상 대표



<사이언스팬데믹>

김수린

해마루초등학교 6학년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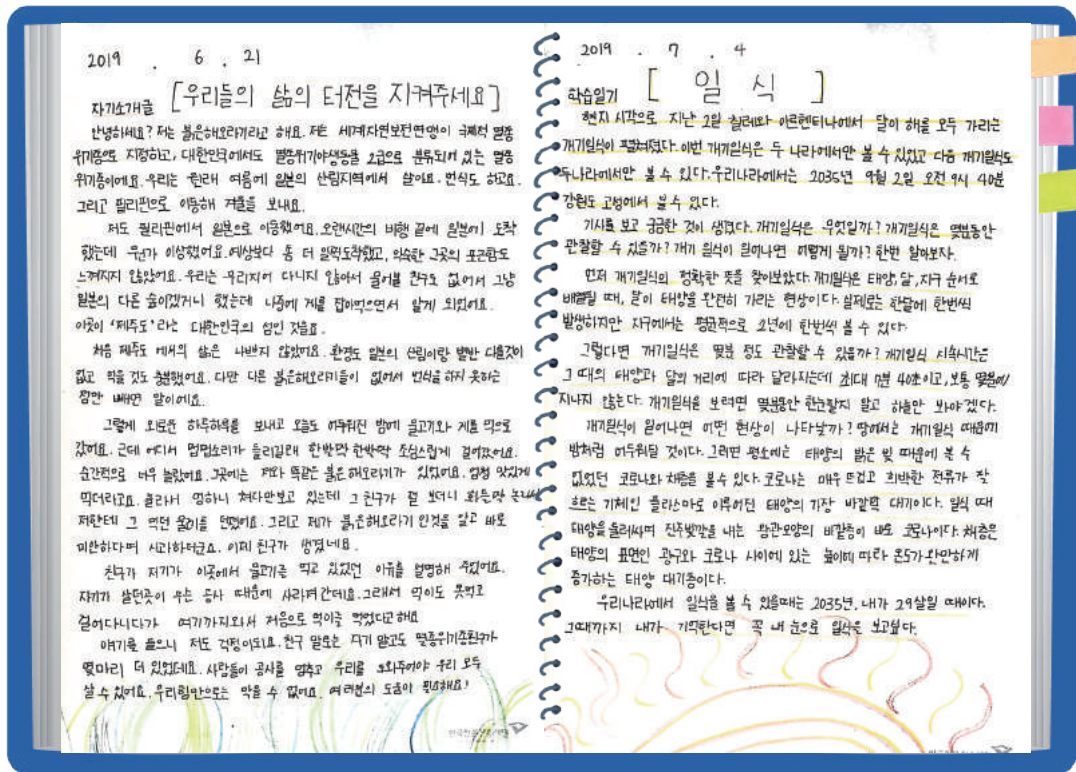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수상 소감을 말하기에 앞서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찾는 것을 도와주신 선생님, 그리고 제가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동안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셨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활용해 일기로 표현하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을 마음에 새기고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일기를 작성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벽하게 완성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글이 잘 써지는 날도 있는 반면 전혀 아닌 날도 있었고, 쓰고 싶은 뉴스 자료가 쏙쏙 나올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글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어색한 단어는 없는지, 글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읽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나중에는 수정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완성까지 모두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뉴스일기 작성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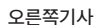
우선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작성해야 흥미를 가지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기를 매끄럽게 잘 쓰려면 뉴스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일기가 뉴스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분석할 때는 요약물 가장 신경 썼습니다. 요약물 통해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뉴스 읽을 때는 핵심 단어나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핵심 단어에는 네모 표시를 하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에는 밑줄을 긋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기 작성 방법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틀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 일기 주제가 과학이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아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점, 뉴스를 읽고 궁금한 점과 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글을 이어 나갔습니다.

<청구초등학교 6학년 김유정>

[illegible][illegible]

<동현초등학교 6학년 박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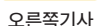
<비어있>
① 희망직업
예 희망: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랄
작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간의 작한 노력에 따라 일
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희망직업: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이 작한 노력에 따라 일한
일을 하나 이루거나 작하기를 바랄
일은
예 / 요즘에 희망직업은 유튜브라는 생이 늘었다.
② 선호도
예 어떤 것 중에서 어떤 대상은 특별히 격해서 더 좋아하는 것
예 예/어지러한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③ 학습
예 놀고 보며 학습하게 함. '놀이 보형'으로 소하.
예 / 도구를 활용함 학습이다.
성질
나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편이고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나만 이렇게 애지나. 근데 희망직업 3위까지 한게 늘
유튜브에 많이 진짜 끈질긴다. 유튜브를 공부한 것들이 유
게속 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① 인종차별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인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하는 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 백인의 황혼에 따른 황인종 배
척,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흑인차별 따위가 대표적이다.
예 / 나치 쿤터강은 흑인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다.

② 배차
정해진 시간 또는 순서에 따라 자동차나 기차 따위를 일정한 순
으로 구간에 나열함.
예 / 지하철을 3분 간격으로 배차했다.

③ 자사
자기가 소유되어 있는 회사
예 / 삼성에서 월급의 10%를 인종차별금에 기탁했다.

④ 생활
살아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들 사는 것은 아니나 굳이 그렇게 지낼 해야 하나? 내가 어
떻게든 잘지 그나마 거기 살고 싶었다. 꼭 먹고 마셔도 인종차
별을 한 미이전 배려로 음식이 없고 의식도 없게 된 것이다.



개인 어린이 고학년-동상 수상작

<화정초등학교 6학년 방은우>

좋은 점

1. 국방비↓ 국민의 편의 위해 사용 가능
2. 국민의 풍부한 자원+남한의 기술력+경쟁력 있는 제품
3. 철도를 이용해 외국과 원활히 교류 가능

나쁜 점

1. 서로 다른 문화, 정치로 충돌
2. 서로 다른 말로 인한 충돌
3. 남한인, 북한인 차별

다양한 노력

정치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2004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경제	2005년 남북공동성명 채택
사회·문화	2018 남북한 교류협력 공동선언 채택 남북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국제사회에 공헌

2019. 11. 09

15

모병제??

국기 영의 의무를 강제로 징집하지 않고, 직업 군인으로 제한한
사람들을 뽑아 군대를 구성하는 병역제도로 우리나라 모병제다
반대되는 강행책을 채택하고 싶다.

P

자살한 문제로 군대에 갈 수 있는 병력이 줄어들어 징병제
유지보다 모병제 전환이 좋은 편이다. 징병제는 안전성·
효율성이 떨어진 반면 모병제는 전투력, 향상된다.

M

미국 우리 나라의 전쟁이 끝나면 많은 북한 국가 인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으로 유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남북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다.

I

이러한 모병제로 전환하지 말고, 통일이 된다면
모병제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3



오른쪽기사

<동현초등학교 6학년 안이슬>

미투를 갖자!(견정/성정)

“관세청을 생각하는 미투를 갖자. 관세청의 선원자 이
기을 학교 많은 사람이 미투를 시작했다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관세청의 선원자가 밀도있는 공헌이나 놀이대가 떠났다고 관
불파마다 인상은 제멋대로 나의 모습도 떠났다고...”
아마도 반란군을 의해 카운터는 대도 배신술이나 개미군을 한
하지 못하는 것은 근거 없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지런하지 못하다. 너무 부지런하지 못하고 귀찮아 한다면
당연히 개미 대군 관세청이 견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비효율이 되었다. 똑같은 세입자를 여느까지 간다. 이는
숙명처럼 차를 타고 관세청에 가는데, 개를 돌보는 작업이 줄어들어야
과연이 그들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고민 사람들이 안지키는 것은 약기기에 붙는 강아, 안나온
도 원해도 원한 제 간제하니 그것도 우리사람들의 문제이다.
앞으로 세입자생활을 통해서 반란군을 공공장소에서 어떻게든
알게되었으니 나와 미투처럼, 모든사람을 위해 미투를 갖자,
여러는 마흔 더할 필요가 있다.”

-원정원 제2911호 3판
2019년 5월 28일 발행



한국신문출판협회

<그건 아닌것 같네요>

요즘에는 안다섯, 각종 안락한 삶 유행하게 되어서
뒷담, 누가하는 다면 보낼수 있게되었다. 그런 사회들에
각종 남사당계도 유행해서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기록이
없고 원리라는 것도 유행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다중과적인 사람은 유난한 군. 편 내들이 기억, 마음에는
은 복음에도 안락 없이 유행이 된. 각종 연예인들이
작가 된다는 점에 대해 '전통 안락한 삶'라는 생각
을 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냐가 되었는데
때 때로 유행을 일으키는 것이 행이 된다.
같은한 상황에 나쁜사람도 간혹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전
국적인, 관세청처럼, 관세청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들에게
관세청도 이제 유행을 일으키는 것이 되게되었다. 그
데 관세청이 유행하게 되면 또다른 유행이 생길까 불안해 감
을 느낄 것이다.
이런 유행을 일으키는 것이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라
같은 유행이 그윽한 유행을 일으키는 유행이 아니다.

-원정원 제2911호 3판
2019년 5월 28일 발행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개인 청소년-금상



<뉴스랑 친해지기>

엄효진
양청고등학교 3학년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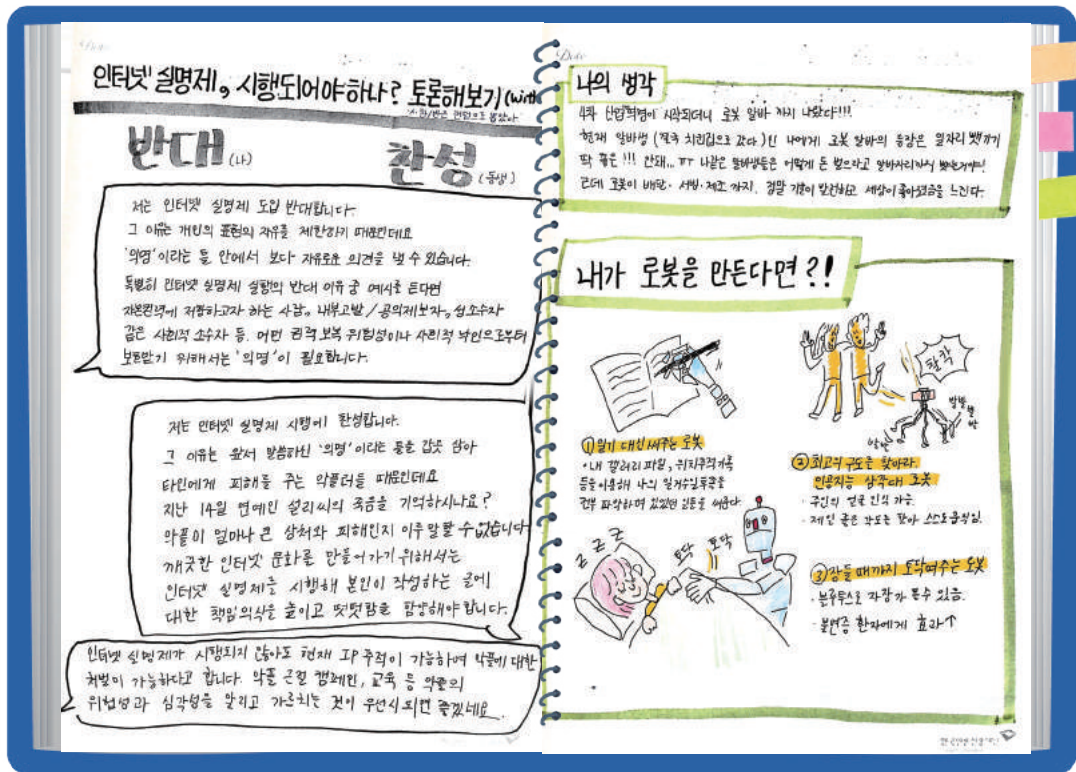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수상자가 발표되었던 날, 수상자 명단에 있는 제 이름을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행복한 감정과 큰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인 청소년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은 저에게 잠들었던 열정을 불태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 뉴스일기의 제목처럼 뉴스와 친해질 수 있었고, 다양한 언론들을 접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뉴스일기를 써준 나에게 고맙고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해줬던 가족들과 제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평소 글쓰기는 좋아했지만 뉴스와는 많이 친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왠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었던 저는 뉴스일기 공모전을 시작하며 '이 기회에 뉴스랑 친해지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편, 한 편의 일기를 써갈수록 오늘 일기장엔 어떤 뉴스를 넣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새로운 정보들을 기쁘게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뉴스를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던 일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게 되는 재미와 가짜 뉴스 찾아내기, 더불어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분별력을 키워가는 즐거움에 이제는 뉴스를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그 날의 이슈를 담은 뉴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나의 관심사, 궁금한 것과 관련된 뉴스를 선정 합니다. 하나의 기사만을 읽는 것보다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추가 정보가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의 뉴스를 몇 개 읽어본 후 그 중에서 선정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일기의 구성에 가장 적합한 뉴스를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의도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읽을 때는 기자가 어떤 의도로 뉴스를 작성했는지 생각하며 읽고, 무작정 수용하기보다 뉴스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지 정리해가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작성할 때는 뉴스에 대한 느낀 점, 뉴스를 분석하는 과정, 나의 하루와 뉴스의 연관성 등을 자유롭게 쓰고, 때로는 그것을 글이나 사진, 그림, 마인드맵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청소년-은상 대표



<태희의 뉴스일기>

문태희
문향고등학교 2학년

수상소감

제 꿈이 '언론'과 관련이 있어 뉴스일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내 생각을 일기로 쓴다는 것이 새롭기도 했고, 이렇게 기록하며 제가 더 배우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모여 대화도 나누고, 매체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감을 잡아갔고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한 권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다니고 매일 반복적인 하루를 보내며 그동안 일기를 쓰는 의미를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이나 표현법, 나아가 가치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관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었으나, 그동안 뉴스를 볼 때 다양하게 비교하며 보지 않았고, 흥미를 갖는 분야의 폭도 좁았습니다. 이런 점을 자각한 뒤, 개선하고자 다양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사실인가 비교하며 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후 이런 것을 메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보통 말로 끝냈던 것을 글로 남기니 이해의 폭이 깊어졌고, 대화할 때도 생각 정리가 빨리 되었습니다. 또한 뉴스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배우고 느낀 것 역시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개인 청소년-동상 대표



<설아의 뉴스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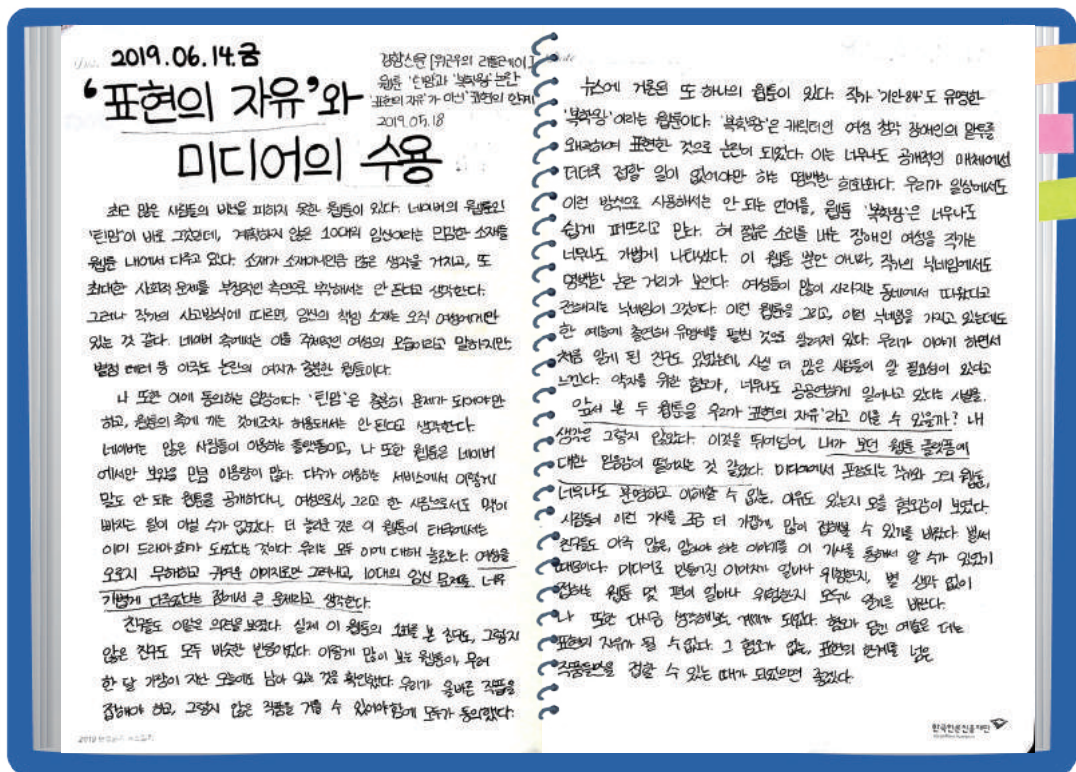
범설아
문향고등학교 2학년

수상소감

온전히 상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담으면서 동시에 저 자신의 생각의 성장을 위해 시작한 뉴스일기였지만 상을 받고 난 후 보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수상을 하고 일 년을 되 돌아 보고 나니, 처음 일기를 쓸 때에는 막상 시작은 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감을 잡았어도 원하는 기사 소재가 나오지 않거나, 방학이 되어 일기를 쓰는 것에 소홀했던 제 모습 또한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앞으로도 사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처음 뉴스일기 공모전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도 그랬지만, '직접 해보면 어느 방면에서라도 좋으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 많은 양의 뉴스를 접할 기회도 없었거니와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주제로 일기를 쓰는 것도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번 공모전은 사회를 알고 사느냐, 혹은 모르거나 외면한 채로 살아가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확실히 배운 점은 세상 모든 이들이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법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정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사 본문

뉴스일기 작성 TIP!

뉴스일기를 쓰는 데에 물론 정해진 규칙은 없겠지만, 뉴스 선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기사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단지 한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본 것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저만의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기사를 접하는 경우, 종종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생각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뉴스일기를 여러 사람들과 쓰거나 적어도 일기를 쓰기 전에 한 번쯤은 해당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일기에 친구들과 나눈 내용을 포스트잇에 함께 정리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일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 9. 19 출처: 서울신문 - 이태원 가파, 김주현 가파, 비영 자살해 부자, 서울경제

정해 11월 14일 화요일 2월 6일

<구미여자중학교 2학년 박주연>

기나아오
기나아오 공물들을 보지 않았는 절내 처럼 들음들이 돌아나서 있을 두고, "들음과 고통함 이었다."
와 "들었다"라는 것은 들음의 대립이 이루어 나고있다.

기나아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절내처럼 들음들이 통찰내리니 생각한다. 절내처럼 들음들은 불쌍한 사람을
특히 연인에게 줄것을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한때 불쌍한 자에게에서
같이하면 들음들이 한정된 공간에 갇혀 매달매달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되는데
그런 들음들로 할수있을까? 인간의 활동장난을 생각해 들음들을 가호할 구경거리
있는 것은 인간의 이해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 거기서하여 오는 어둠으로
의미적인 자연과 비슷한 흐름을 찾아내다보면 그게 진짜 자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들음들은 자연에서 사냥법을 잊은 것이고 생존방법 떠나 있을 것이다.
또 절내처럼 들음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뿐만 아니라 들음들 때문에
서로를 어린아이들의 인질을 받아야한다. 구경거리로 되는 것은 들림처럼 듣게
달려있어 아이들이 인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아닐까? 때문에서 두려움대어
많은 들음들이 인간의 인질을 받으며 매일매일 울어야해서라면 참은 하지못하고
상심이 많은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지겨워 생각된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이나
보내 드레스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원치 않을 것이다. 뛰어볼 수 없으니 말이다.
또 들음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조용히 하고
해도 도란은 찾을 수 없다. 찾기가 아니니 조라니 울릴테니 이것은 들음으로
스트레스를 더 높일 것이다. 만약 어머님의 의뢰처럼 들음이 흔들리면 다시나
해서 들음이란 도란을 찾을 수는 없다. 어느 이유를 간론 절내처럼 들음들은
절정적이더러 우리 두 작가를 이어하되 절내처럼 들음들이 아닌 일반 들음들
역시 들림대로 보고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음권도 생각하고
들음들을 보호하고 유포시키려는 길이 있어도 좋겠다.

들음권
사람이 아닌 들음도 인간의 인기에 걸출될 수 있는 생명체로 서로
있으며 고통을 회피할 권리가있지 않음으로써 개개 존재하는 생명체

[illegible]

<화수중학교 3학년 서준영>

2019. 4. 25

미국 국제기 돈배달은 소수가 회세가 되고 있다. 이소만 사파를 하고
있지만 환전으로도 일하고 있다. 작년 8월 20일 부터 소액까지
앞에서 투자는 피라미드 반박 보급에 따라 손실까지 배를 늘리고
11월 까지 시기를 헐었다고 한다. 그해 하반기부터는 악독했던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이 파업은 국제적으로 주의를 받으며
3월 15일 115억여의 현금이 (140만명) 참여했다고 한다.
이 현금이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저런에 리어십이 뛰어가 날랐는가? 심지어 돈배서로
프랜차이즈 그리는 법하고 유권자의 연설을 했다고 한다.
사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서 연설을 한다니 놀라워서
광란이 혼란된다. 나는 여기까지 TV에 나오는 현명 유권자를
별로 별한가 없었다. 애초에 질주를 하라는 광고가
나오기도 그냥 지나쳤을뿐 그런 것은 없었다. 하지만, 205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하계올림픽을 할수 없다는 말이 나옴이 깊은 깨달음으로
최근 인스타 30%의 북극곰 광고를 보고 이렇게 쓰면 고려했다더라
말도 있었다. 그리고 이 글을 독해, 돈배의 연설, 지구살리기
관심이 생겼다. 앞으로 나하하 한다고 도움이 큰 것일지라도,
내비를 칠하든, 안쓰는 진가는 거두는 등 더 화를 유발한다.
이렇게 중언부언하면 하계올림픽 할수 없겠지?

1월 30일쯤 소액 거주권까지 받고

11월 24일 2019. 04. 24 4월 24일 해버린

2019 11 09
 산은 천은 많은 위험을 가한다. 강을 거제와 사들이면 천은가서
 사는 사람은 안전국이 되고있고 있다. 하지만 그로한 바를 잘알지 못하다
 위험한 노릇을 사해려는 것이다. 안전을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가
 난수이 기적되고 원한 천은 상을 이룩한듯 한 사회 천은은 안전중요에
 결심한 지기이다. 행이 사해는 더빨리 목을 당고나기위해, 조로 더
 당기 벌기 위해 우리 그로한 그로한 많은 것은 모순하고 실상지된다
 우리사회가 제어원조로 강대면서 화도 조 강과제와 바르시도 나아서
 있는는 아바를 많이 들었다, 같은 리사에서도 정적과 바르시로 잘못
 나가 왔던 많은 도라와 주에이도 있다.
 그전에 일어난 한국사무원인 도라바라한노 호병임제인 천은가서
 제나라는 일면의 정조리가 지나와 조적 사해는 천은한 천은가서
 가에서 목을 당고나기위해, 조로 더 당기 벌기 위해 우리 그로한 그로한
 에 거지고있다. 하지만 일러버 천은가서, 사조 정하에 결심하고
 불조로 불병임제와 정조리와 안전국을 하나나 안전국 지기로
 해리하는 일들이 노동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천은이해 불리 많이 후하기보다는, 사들이
 한성 연가하는 천은이 사해는 안 좋있다. 사해고 생명을 통해
 사해는 천은의 기적이 아바는 사해는 천은의 천은의 천은의 천은
 천은의 천은이다.

국인일부 2019년 11월 09일 (리) 0900면 끝

김조영 임 단조리인 ... 우리 줄을 땀, 안전이 국경이다.

김조영 임 단조리인



개인 청소년-동상 수상작



<팔마고등학교 1학년 이현지>

견우적(견우: 스무살, 흉남) 2019. 09. 20.5

일본 여행 갔다고 '공개 망선'... "성숙한 불매운동 필요"

일본을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일본을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일본을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일본을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일본은 참 매력적인 나라이다. 문화도 물론 거기보다 나은 게 많지만...
일본을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열매달, 스무이들, 해날 2019. 09. 22. 1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 1년' 혜택 부모 '희비'

"안 쓴 육아휴직 하루라도 남았다면
'단축 1년' 추가 허용"

"혜택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불만." "소금 격을 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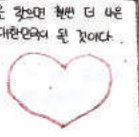
고용 노동부

"소금 격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



NEWSIS

육아휴직 여가만 혹은 남가만
하는 건이 서로 같아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여가와 남가 육아휴직 기간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육아휴직 해줘야 더 좋겠다.
일한 것도 다방이랑도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더 좋은 방향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선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정은진>

2019년 8월 20일(목) -2019. 08. 20. 금요일-

"죽은 편이 이겼는데...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나쁜 놈은 돈 한 톨도 안 쓰고...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성범죄 없는 세상...

우리는 이번 주에 가서...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2019년 8월 20일(목) -2019. 08. 20. 금요일-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before>

<after>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VS



천재, 사죄금 창고, CCTV, 위험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사죄금 창고에 돈이 없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개인 성인-금상



<현명이의 눈에 비친 세상>

■ 김현명

수상소감

‘채근하듯 울려대는 새벽 6시 20분 알람을 끄면서 핏발 선 눈을 힘겹게 부릅뜨고 빙하처럼 추운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다. 출근길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내는 특유의 ‘쿠궁 쿠궁’ 소리에 집중한다. 심해의 고래와 음파 도킹을 시도하다 황급히 깬다. 파리한 형광등 아래서 A4 용지처럼 허영게 뜬 얼굴로 시들어 간다.’ 이렇듯 무료한 일상을 이어가던 저에게 유일한 취미는 ‘뉴스읽기’였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한 뼘의 사이다 만평, 통찰을 믹서에 갈아 만든 순도 100% 고농축 사설을 읽다 보면 쪼개질 듯한 머리에 겨우 숨 쉴 틈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의 잔뿌리들이 굵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평소에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지만 따로 글로 생각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차분히 앉아 참으로 오랜만에 손으로 일기장을 써 내려가다 보니 머릿속을 돌아다니던 가치들이 정갈히 정리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부러 논쟁이 많은 주제를 선택해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이내 하나둘 장막이 걷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기를 쓸수록 사회 문제가 나와 동떨어진 ‘어나더 월드’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추운 겨울 국회 앞을 지나가다 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눈빛, 일터 근처에 문을 연 장애인 자립형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진열하던 발달장애인의 성실함, 이별 폭력으로 화상을 입은 사촌 언니의 일렁이는 미소가 뉴스 속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접히고 축소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의 내부에 일었을 소란을 증폭해서 읽는 기자들의 성실함과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슬픔이 뉴스 속에 있었습니다.



뉴스일기 작성 TIP!

86

개인 성인-은상 대표



<뉴스 안에 세상 있다>

정혜전

수상소감

일기를 쓰는 것이 얼마 만인가. 밀린 방학 숙제처럼 때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뉴스일기'에 도전했습니다. 8개월 이상 뉴스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뉴스에 집중해보니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평소 편한 마음으로 접하는 TV 뉴스와 달리 신문 뉴스에서는 세상을 더 깊게 보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가며 일기를 썼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2020년에도 공모전이 진행된다면 지인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두 달에 한 번 만나는 소모임의 화제는 '큰 언니'가 주도합니다. 어디서 배운 실력인가 궁금했는데 "뉴스를 많이 본 결과"라고 합니다. 그때는 흘러들었던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뉴스일기'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해보니 뉴스와 세상사에 리듬 같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는 척할 단계는 결코 아닙니다. 기껏 읽은 뉴스보다 제목조차 읽지 않은 뉴스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뉴스일기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주부도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문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확인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기사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수)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8곳을 지정 취소했다. 각각
하남은 "자립특성 식 평가는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영 간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여러 이유 중 교육
분야 이외의 지나가 터진 것이다.

전에 동등학생이 없어 이 문제 자체에는 관심이
반면에 이 문제를 다른 기사들을 논쟁해 왔다. 인터넷
색을 리서 기사 제목부터가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
반이 명확하고 일부는 종합적이다. 전반이 무리한
개를 선택했다.

- * 중앙: "학력 저하도 6곳 강북/강남 이사하라 떠날
- * 세계: 조현의 '자교도'... 교육 혼란 초래
- * 경향: 서울 자사고 8곳 무어기 '평가 실패'
- * 한겨레: 서울 자사고 8곳 지정 취소... '고교체제
개편' 한 실전다.

앞의 두 개는 제정된 평가의 의도와 관련된 문제
뒤의 두 개는 공정한 평가의 결과이며 향후 제제
이 중 하나는 양면이다. 독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흔의 선물을 찾아 많은 것들이 있다. 자신과 비슷한
을 떠는 선물을 보면서 '선생님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을. 보니 내 생각이 옳았구나'라고 하게 된다. 자를
찾아보니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불렀다.
치적인 왜가 관용을 이면 양상이 더 심해진다.
저는도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걱정이다.
그: 서울 해정법원은 8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여부를 결정했다.

2019년 8월 20일 (화)

교육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재학 중 여자로 의회
문물 제정하고 이 문물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1면과 3면에 보도한 내용이다.

교육 세는 8·9 재학으로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검증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과 사
판도 유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딸의
논문 참여 의혹은 그보다 더 충격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많은 논문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얻
었다면 전국의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판다.

부모 이름을 보면 고교생이든 조희의 딸이 과학과 박
사라친분이 참여한 논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고교생이 석사도 연재 기여했는지, 남의 연
주를 가능한 것인지, 부모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 가려
내야 할 것이 많다. 당국이 나서서 학부모들의 의
구성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조 씨 측은 "그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말로는 해명이 될 수 없다. 문자의 논문을
다른 이해 관계는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올렸다"면서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문제를 일부 시인했다고 한다

당사자, 관리자 등의 증언이 충분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람들은 장관 후보자의 검증 때 재산 문제는 파거보
다 될 중요하지만 자적 교육 문제는 간과되지 마길
다. 큰 장점이 될 것 같다. 그: 이 기사를 쓴
작성은 기와 등이, 한국, 김진상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2019년 10월 29일 (화)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치렁리름' 기사라는 것을 접했다.
'치렁과 저널리즘'이란 의미였다. **대니얼 데이**의 남형도 기사
선생님 해고 기사를 쓴다고 한다. 모음 인기를 얻는 방식

아침 명종 전에 몰려 기사 악동에 관한 것이었다.
를 100개 읽어봐... 마음이 무너졌다'는 제목만 봐도 답답
하고 갑갑하다. "기사 X같이 써봐라" 부러가 이름도
기재 않고 아이디 일부는 *포도 가린 상황에서 기사 전
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 기사는 치렁리름 100개 이상의 악동을 꼼꼼히 읽
었다. 마침내 악동이 시작됐다. "개 같은 기사 X들, 뒤
"기사들이 삼킨아들" 같은 것을 읽으며 그는 "완전 무너졌
다고 했다. 저러 같은 치렁리름 기사에 대한 댓글은 "폐자
나 줘고 사냐? 이 리성환 인생야. 복받하구나"였다. 장하
기사는 "기레기 소설 잘 쓰네 쿨 등단이나 해라"라는 악
들이 붙어 있었다.

악동들을 읽자니 남 기사는 점점 졸 때는 일만이 산
라져 뻔으로 매월도 배는 안 코든데 마구 먹게 되
었다. 높고 넓은 마음이 들었고 소다 위에 뻗어보니
토 게 갑갑했고 악동을 구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말
았다. 저문자는 "아름속에서는 신체적인 폭력과 똑 같
이 느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심해져! 치렁리름 기사가 악동의 고통을 생생히
전해왔다.

2019년 7월 17일 (수)

1 대 30. 스포츠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스토리이다. 국
가 대항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7월 16일 평창세계선수권
권대회이 수경기였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1대 30의
이아미마한 격차로 패했다.

이런 경기 결과를 보면 언론은 농구를 조롱하자. 통
상적으로는 승자의 스토리에 주목할 것이다. 하지만 칸
조 언론은 한국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법 큰 기사로 다뤘다. 강동적인 스
토리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 신문이 수경 경기 결과를 다뤘는데 **한국일보**는 더
크게 다뤘다. 옆에 사진을 찍고 스포츠면에서 큰 사진과
함께 선수 이야기로 전했다. 스포츠 신문의 관련 기사도
찾아봤다.

한 달 전 처음으로 집을 꾸민 여자 수구팀 선수들은
겨우 두발을 맞춰본 수준이고 체력, 기동 면에서
정대적인 면에 독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첫 경기
에서 강호 한국팀을 만나 무려 0대 64로 패했다.
한국 팀은 3회의 숫을 해를 뺐다. 두 번째 경기에
서 더 힘든 상대인 러시아와 만나 드디어 6대 1로
(18)이 한 골을 뽑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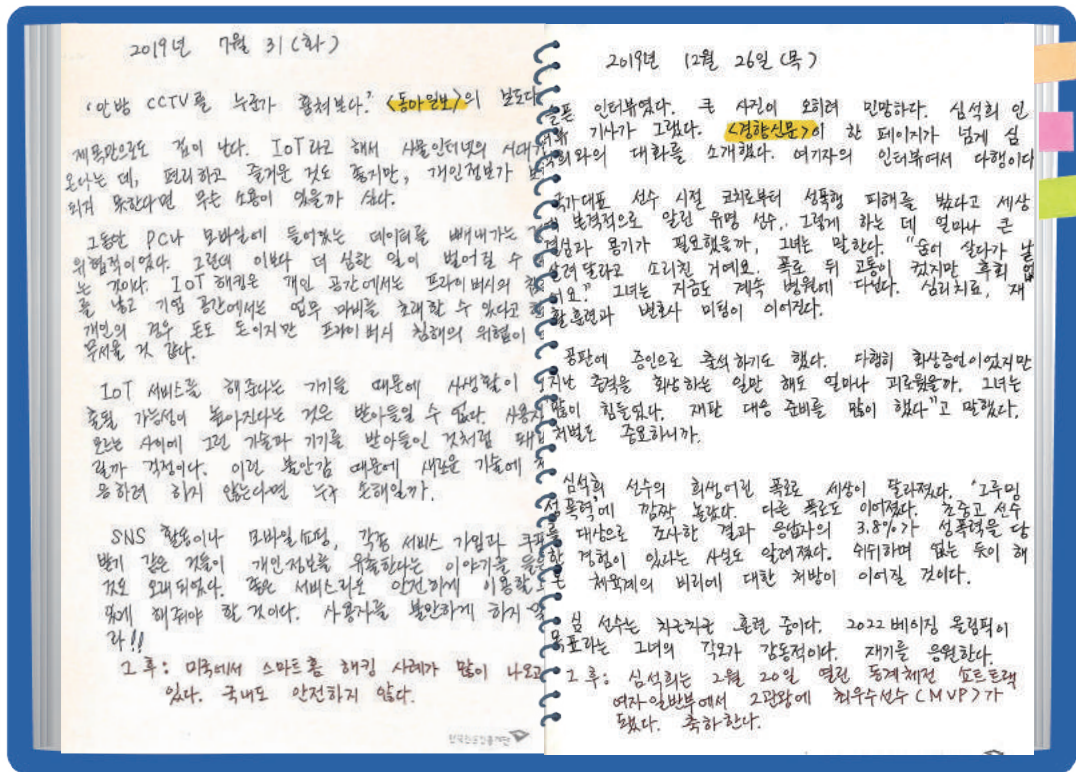
승리보다 더 강렬적인 한 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감동을 놓쳐 스포츠는 생명이 있다. 승리는 안 봤
고 스포츠 기사도 아슬아슬 보는 정도지만 이런 멋진
장면은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수구 대표팀은 2020년 1월 첫 훈련을 했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처음에는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여러 개를 읽어봤습니다. 느낌이 오고 궁금한 것이 생길 때까지. 일주일 그렇게 해보니 쓸 이야기가 잡혔습니다. 기사를 많이, 자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도 많이 읽어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기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로 뉴스일기를 쓴 방법은 ‘비교’였습니다. ‘나로서는 정답을 알 수 없으니, 기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를 함께 놓고 보면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가 구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 작성을 위해 평소 메모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어만 써 놓고 나중에 ‘이게 뭐더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상세히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명희 (51세)>

2019. 5. 18 토 완주 2주째 52세면

3. 스마트폰 할 때 쓰는 앱들이... 하루 1시간 이상 보면 발발장애 위험

4. 언어발달 지연 원인도 밝혀
병을 앓은 아이 63%가
한글 20년 전까진 스마트폰 사용
2-4세 아동엔 하루 1시간 이하
1세 이하엔 화면 노출도 없어야

5. 스마트폰에 더 빨리 적응
속해하면 폰 중독성도 높음
TV 제보와 독서 - 신체활동 등
아날로그 방식은 뇌 자극
아이들 빨리 가도록 모두 함께
스마트폰 쓰지 않는 시간 가져야

6. 언어 발달 지연 원인도 밝혀
①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비율 : 2015년 - 12.4%
2017년 - 19.1% → 성인과 비슷한 비율
② 어린이 스마트폰 이용률 : 67.7%
③ 원인 : 아이가 클 때 + 때에 쓴 때 → 부모 : 스마트폰으로 주지 않기
→ 전자기기 경고 - 이는 나이에 걸맞은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면
각종 발달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4.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 발달·정서·행동·정신·신체·소아정신과와 교수팀

만 2세 이전 미디어 노출된 아이들 대상 연구

결과

- 언어 발달 문제 때문에 앓은 아이 : 63% (성인 만화들 영상 볼 때)
- 불어지는 문제 호소하는 어린이 : 75% (평균 24개월 이상)
- 많이 본 동영상 - 전화 39% 노래 + 활동 - 30% 전화 - 29%
- 영어 학습 2%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이유 - 사람이 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상실할 때
미디어로 - 시각 자극만 활성화

- 전두엽 (사고력 담당) 활성화 하지 않음
-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때문
- 스스로 자라난 것 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부모와 소동 + 상호작용 - 시간 없음
장시간 볼 때 문제가 될
집안력 + 학습 + 사회성 발달에 영향

5.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만 1세 이하	텔레비전 + 스마트폰 + 게임기 + 컴퓨터 등 →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 삼가해야
만 2-4세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사용 시간 조정

6. 유아에게 할 수 있는

(1) 보상의 스마트폰을 주는 것 삼가하기

① 미리 소비와 학회 경고 - 공격적 행동 + 불안 + 수면 장애를 유발 ↑
- 국어도 물어볼 수

② 부모 - 아이가 읽는 책을 함께 보
(예) 밤 잘 자고 싶다면 + 공부하면 + 읽어야 할
스마트폰 관련 책이나 책을 구입 가능
부모 + 아이 - 함께 규칙 정하기 →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함

(2) 교육을 영보와 언어 이해와 학습을
3세까지 언어 - 신경세포 가지가 → 폭발적으로 나빠지는 시기

(3)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기기 + 계속 노출 : 뇌는 전자기기로 자극
→ 수면 장애 + 학습 지연 + 자폐성 등 발생 가능

7. 기억 소환 일기

모르는 것이 많을까? 아는 것이 필요할까?

유대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는 가족 때와는 다른 것도
없고 정리가 없다 보니 잘못된 행동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음. 성격이 차이는
동안 TV를 보면서 한자어 단어를 7만 개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잘하는 것
이라고 소개했다.

그대로 다뤄진 것은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독감
독이 들 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같은 고령으로 보아도, 뇌는 기억을
만들어 주어 만가도 하고 배를 만드는데도 필요하다. 좋은 학습을 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

아이들 귀를 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끔
공공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들고서 하던 짓도 하지 않게 한다. 어떤 자녀든 가까운
엄마들이 심하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안락함을
늘 줄수록 움직이지 않게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의 건강이 안 된다.

내가 했던 것들이 좋지 않다고 그들도 알았을 것 같다.



원작자

<장연주 (58세)>

2019년 6월 14일 <서울경제>

▲ 관련 정보 : 2019년 6월 14일 <서울경제>
1980년 광주 2019년 홍콩 시위 '홍콩 필'

민주주의 운동은 법안 제정하려는 홍콩인들
'더 빨리 끝났다고 있는 분들에게' 전 세계에 호소
최종과 홍콩 광안 '노골적으로 조직된 폭력'
16명 '검은 대륙' '예고' ... 한 편의 홍콩 예고

▲ 용어 정리

부 범죄인 인도법안 : 홍콩 정부가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가
지역에도 범죄인 인도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소환법)

▲ 홍콩 사태 정리

- 1997년 중국에 반환 → '영국령' '자력적 획득'
- 홍콩 입법회의의 통과 → 범죄인 인도법안 찬성 시 92만 명이 나왔다
VS
며 법안 처리 당파의 주장
- 홍콩 시민들 → 반체제 인사나 민주 운동가들 중국 본토로 옮긴
최근에 악몽 우려 (홍콩 97, 98 (1997년) (홍콩 반환))
- '우리 집, 우리의 홍콩을 위해 당신의 원과 목소리가 무척 중요하다.'
우리를 지지하려면 SNS에 해시태그 #Anti ELAB와 함께 사진을
올려 우리의 상황을 전해 달라'고 호소
- 홍콩 정부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
체포 및 처벌 지시 : 간첩, 스파이, 자살 등으로
진압
- 시위대의 요구

①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② 행정권과 입법권 분리
③ 소환법 공적 철회
④ 경찰의 장전 진압에 대한 독립 조사

2019년 6월 17일 출처 : <한글일보>

내 대 구

송환법 유보 캐리람

고집

▲ 사사단원 따라 그리기

내 생각

홍콩이 영국에 할양된 뒤 영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다가 갑자기 97
년만에 중국에 반환되었는데, '인구와 문화'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할 수 있
겠다. 홍콩 사태는 더욱더 그렇다. 홍콩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홍콩은 오랜 기간 요구다. 그들의 민주주의 요구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선택으로
있다. 홍콩은 역사상 특별한 공간이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특수성을 관철
해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를 여러 번 본 그
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원칙도 인간의 존엄은 자유와 평등을
향해 움직이지, 어둠을 향해 빛을 쫓아가지 않는다. 홍콩에 밝은 민주주의의 빛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기사 본문

개인 성인-동상 대표



<여름방학, 뉴스일기를 그리다>

고서연

건국대학교(글로벌) 신문방송학과

수상소감

‘차근차근’은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주로 마음이 불안해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씁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것도 저의 ‘차근차근’ 중 하나였습니다. 바쁜 한 학기를 보내고 방학이 되었을 때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언론인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파란 일기장을 꺼내 들고 ‘차근차근’ 채워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꿈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공모전에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월, 좋은 결과를 받고 다시 한 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뉴스는 항상 함께하지만 친해지기는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인데도 다양한 해석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그런 ‘뉴스’라는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뉴스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그렇게 찾아낸 사실을 내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뉴스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일기라는 이름으로 일상과 함께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미디어 리터러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상 어려웠던 뉴스가 익숙해지니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전이 끝나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꾸준히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3

구분	체크	내용
분석 (누스)	생성자	- 학보식(대학) / 장학기금(연도 등) / 학비 - 장기 프로젝트 / 외자(외국인) / 사업연도 / 2019. 11. 28 - 한민족 평화 선언서 / 평화의 꽃 여신 여제
	구성 요소	- 제목 / 학제명 - 시각자료(사진, 영상, 그래픽, 통계자료) 6차원적 - 산책, 조양자, 2019. 11. 28 평화의 꽃 여신 여제 11. 28 평화의 꽃 여신 여제 - 시각자료 (1) 2019. 11. 28 평화의 꽃 여신 여제
	의미 구성	- 감동(내용) / 감동(내용) - 학보식(대학) / 장학기금(연도 등) / 학비 - 장기 프로젝트 / 외자(외국인) / 사업연도 / 2019. 11. 28 - 한민족 평화 선언서 / 평화의 꽃 여신 여제
	이용자	- 한민족 / 학제명 - 시각자료 (1) 2019. 11. 28 평화의 꽃 여신 여제
평가 1 (누스)	신뢰성	- 학보식(대학) / 장학기금(연도 등) / 학비 - 장기 프로젝트 / 외자(외국인) / 사업연도 / 2019. 11. 28 - 한민족 평화 선언서 / 평화의 꽃 여신 여제
	원진성	- 학보식(대학) / 장학기금(연도 등) / 학비 - 장기 프로젝트 / 외자(외국인) / 사업연도 / 2019. 11. 28 - 한민족 평화 선언서 / 평화의 꽃 여신 여제
	유용성	- 학보식(대학) / 장학기금(연도 등) / 학비 - 장기 프로젝트 / 외자(외국인) / 사업연도 / 2019. 11. 28 - 한민족 평화 선언서 / 평화의 꽃 여신 여제
	평가 2 (한민 비교)	원진성 유용성
	하위 비교	- 학보식(대학) / 장학기금(연도 등) / 학비 - 장기 프로젝트 / 외자(외국인) / 사업연도 / 2019. 11. 28 - 한민족 평화 선언서 / 평화의 꽃 여신 여제

2. 0. 중부역행상 노선

2019. 5. 13. 화. 12/21°C 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기업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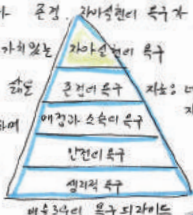
현재 제1호 여관 대점 속에서 제6회 의 생활발전
대책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달리 달락으로
만난 것 외의 양상은 보지 못해서, 더욱 더 걱정이다.

주제: 세종, 세종대왕, 이진로, 가리
북동, 백동, 동대문 / 백동, 동대문



Q43

한국 피라미드론 보면 조숙이 특기보라 공경. 가이언현이 특기 가 러
 신노에 도움을 볼 수 있다. 더 가치있는 가이언현이 특기
 많은 다른 사람끼리 문경반은 많은 문경이 특기 저는 데이비드
 살 수 없도록 느긋한 서로 존중하여 배경과 조숙이 특기 지식적인
 배려하는 습이라는 생각할라 인연이 특기
 행복은 자기성찰을 통해 성숙된 행위적 특기
 나를 안는애의 부른다 배움 특기이 특기 피라미드



• 历史 地理 环境 经济 •



개인 성인-동상 수상작



<심유석 (44세)>

[illegible][illegible]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엄승현 (20세)>

[illegible][illegible]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단체 어린이-금상



<스쿨오브락의 뉴스일기>

스쿨오브락 (지도자 정지훈)

천안봉명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기자동아리 강지은 외 20명

수상소감

코로나19로 아직 중학교 입학할 수 없었던 졸업생들에게 수상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일기장이 닳도록 작년 한 해 꾸준히 써 준 학생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처럼, 작은 소식에도 귀 기울이고 생각하며 세상을 보는 힘을 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뉴스의 소중함을 알고 연필심에 힘을 기울여 꼭꼭 눌러 쓴 그 시간이 앞으로도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와 함께한 한 해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무심코 보았던 뉴스, 그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지난날들, 하지만 <뉴스읽기 뉴스일기> 활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뉴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친구는 이 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지?' 그날의 1면 뉴스를 읽으면서 조심스레 기다려지는 설렘과 궁금증으로 가득했던 하루! 내가 쓴 뉴스일기보다 친구들이 쓴 일기가 더 궁금했던 일, 이 모두가 뉴스읽기와 뉴스일기가 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제목: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녀

우리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원종에 하나인 위안부 소녀
크게 본다면 위안부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몇몇년 부터 소녀상이 생기기 시작하게 난 당시 기억하기
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요일 1000회를 맞은 이유 때문에도
걸 처음 알게 되었다. 현재는 소녀상이 분포되어있다.
소녀상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도 위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녀상처럼 큰 소녀가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한다. 일본사람들이 저지른
SNS에도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고 한다.
일본사람들이 SNS에 올린 소녀상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여러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영화도 나왔
한다. 영화제목은 '김복동'과 '주전장'이다.
영화를 보면 내용이 더 이해가 되고 흥미롭기
때문에 영화판 세계로 퍼지면 좋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소녀상

제목: 우리도 한글이 좋아요!

우리나라 한글은 쉬운거 같은데도... 어려운 말로
많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도 감사하다. 어릴
때 소리 글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드셨는지 대
단 신분이야 우리나라 글자가 전세계에도 연어나가 사랑
받는 '한글이 독이 빠서 자랑스러운 글이다. 한글 잘 다
디자인도 한다고 한다. 디자인이라면 좋은 글과 글씨도
모양만 디자인 한다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닌 우리나라
한글을 많은 것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던 분다. '이렇게
한글이 많은 한글을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중니 우리나라 한
글을 한글 잘 다 '이렇게 한글이 빠서 자랑스러운 글이다.

한글 좋아요!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2019년 10월 10일

제목: '아픈 친구에게 비 피를 나눠줘'

한글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알고있었다.
공평하고 한글을 한다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한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
모든 사람이 알리고 한다.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피를
받으면 국경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도 한글을 알리
게 나오면 다른나라의 생명을 살리는데 좋은 편
들이길 바란다. 한글을 한다면서 아무나 한다는 것은 아
나라고 한다. 사랑이나 공평하고 건강해지기만 한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글을 건강을 주고 하얀 용의 신비
사가 활활 해가서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나도 한글을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



쟁그랑 깨트리며 명복 받았죠
일은 옛날사람들의 제사풍습에 대해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가 삼국시
였을때 하던 방법이다. 나는 옛날에
지금처럼 시체를 땅에 묻고 제사만
지내는 줄 알았지만 토끼조각과
말조각이 새겨진 토기를 깨트리며
지냈다니 새로운 방법이다.
죽은 사람을 화장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살아있던, 죽어있던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것 같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제목: "내 매력에 풍당 빠졌소?"
 제목에서 'BT21'이라는 캐릭터를 판다고 했다. 'BT21'이란 방탄소년단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21'이 나오기 전에 카카오프렌드가 인기였다. 지금 인기있는 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인기는 'BT21'이 인질 같다. 제목에 파는 'BT21'이 30만 만에 대진원 책도 있었다고 한다. 나도 제목에서 'BT21'을 사려고 했는데 방탄소년단 캐릭터가 인기 있다는 건 당연히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이상하게 내가 더욱 부럽하다. 방탄소년단 캐릭터도 좋아하는데 내한테는 카카오프렌드가 더 좋게 끝났다. 다른 아이돌 캐릭터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방탄이 더 힘나고 방탄 캐릭터도 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방탄이 앞으로 재밌으면 좋겠다.

제목: "이기는 우주, 지구는 응당해?"
 이 뉴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방탄소년단 노래가 우주까지 퍼졌다는 내용이다. NASA의 우주비행사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134340'이라는 것인 노래를 들으며 약 3원 동안 우주에 있었다고 한다.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으면 우주비행사들까지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는다. 방탄소년단 정말 멋진 보이 그룹 같다. 방탄소년단에 노래로 우주비행사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고, 조금 더 기운 차렸으면 좋겠다. 우주비행사들은 직업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직업인 것 같다. 그래도 방탄노래도 조금 더 힘나고 기쁘게 하면 좋겠다. 방탄 노래가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지고 다른 우주비행사들도 방탄노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주비행사들도 방탄노래를 다 힘나고 기운 차렸으면 좋겠다. 방탄이 앞으로 재밌으면 좋겠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제목: "이제는우리가 빛날 차례"
 인류에 획을 긋는 큰 업적을 이루고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항상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 국적, 인종에 차별 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어떠한 여성 과학자도 남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인공수정'으로 큰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후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시다. 저를 포함한 노력들과 업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훗날 것이 아쉬워요. 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도 과학의 꽃을 가리고 있었습시다. 우리도 과학의 꽃을 가리고 있어서 이러한 멋진 영웅이 되길...
 ① 노력해서 우리도 이제 빛나보았으면 좋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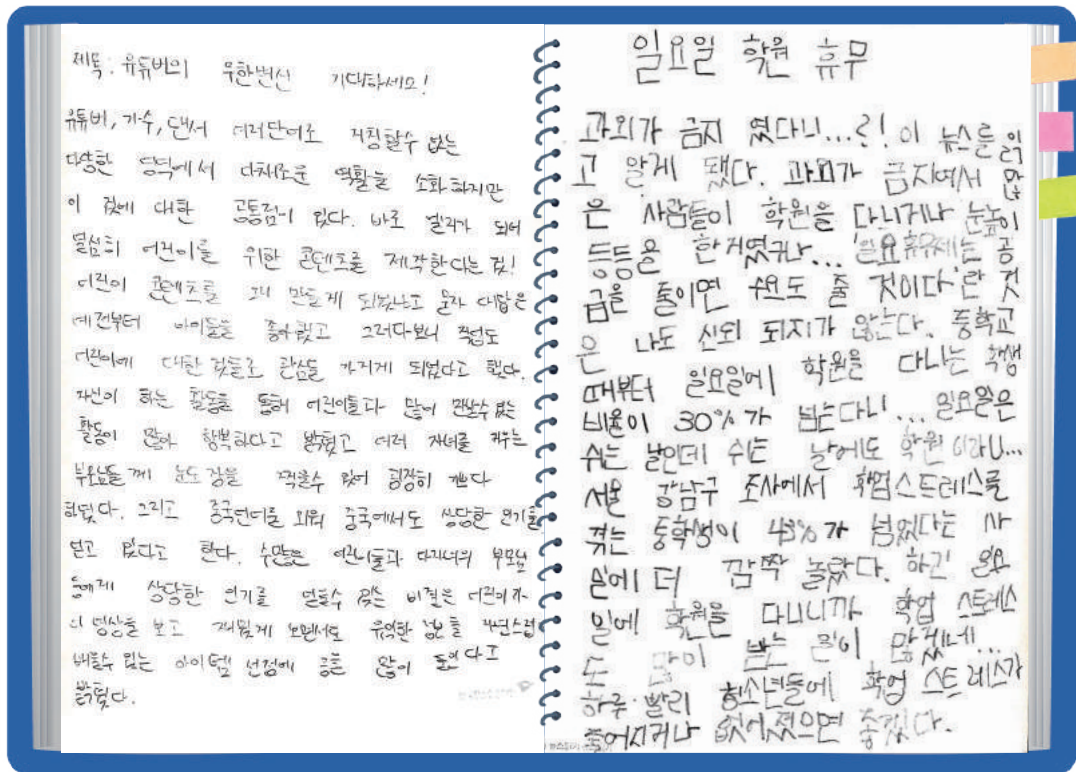
제목: 착한 캠페인
 우리 마포구 공작대 인근에 작은 와스타집 이 파스타를 7월부터 시작한 캠페인 때문에...
 쿨너 카드를 소환 청소년들에게는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쿨너 카드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주는 카드이다. 이 파스타 집의 사장 1인대 대표는 기부한 것뿐이 아니라 힘든지 잘 안다며 이 캠페인...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점점 그 선행은 확장에 되고있고 이 길이 더 많은 그런데 많은 다양한 분야의 185개 가 넘는 기업이 동참하는 서비스에 참여중이라고 한다. 이 캠페인은 이 캠페인...
 쿨너 카드를 소환해서 우리네 불모를 정복해서까지 계속 노력하길 바라고 있었다. 이 기사를 보고 청소년들의 많은 걸 느껴져 눈앞도 대단하고...
 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선행들을 많이 했다는게 정말 뿌듯하여 할 것 같고 대단하다고 느꼈다.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뉴스일기를 단체로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도 아니었고, 정기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도 거의 없던 터라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모험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단체로 작성하기 앞서 개인 일기부터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일기장으로 서서히 습관을 기른 후 자연스럽게 단체 일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쓰는 것을 싫어하던 학생들이 거부감없이 첫 일기를 쓰더니 어느 순간 매일 1~2개의 기사를 읽고 쓰기 시작했고, 다시 누군가가 그다음 뉴스를 읽고 쓰는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신문의 매일 1면 기사를 중심으로 정독하고 스크랩하며 단체 일기장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로 시작하고, 점점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견주어 소감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나아가 단계적인 뉴스읽기를 진행했습니다.

단체 청소년-금상



<무.지.대>

금곡고등학교 2~3학년 (지도자 장두원)

김성국, 박수영, 윤형진, 유상현, 유현정, 조미림

수상소감

NCS 진로직업포트폴리오반에서 만난 우리 여섯 명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뉴스일기를 하면서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고 지금까지 같이 고생해 준 팀원들과 팀을 이끌어주신 장두원 선생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팀원들과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역시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일기를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뉴스에 대해 관심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합니다. 뉴스일기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글 쓰는 능력이 올라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일기를 통해서 창의력은 어디까지인지 나의 한계를 경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둔 학업과 뉴스일기를 병행하기에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해준 친구들과 격려하며 팀워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뉴스일기를 하면서 자료를 읽고 세상을 알아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일에 큰 관심이 없던 우리가 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됐는데, 몰랐던 내용은 새롭게 알게 됐고 알았던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뉴스를 읽는 습관을 이어나가며 다음에도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너를 빨리 만난 가족 상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몇 십년
을 못본 가족을 만나는 건데
그게 원통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좋은 일
인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
겠습니다

만가족 상봉하는 재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멀리 떨어진
서있는 가족의 마음이 잘
와닿았다. 통일을 위해
전혀적인 면에서 힘을
쓰면 좋겠다. 디에이 CRM
출판사

이런것들을 위해 1년에 2번 이상
만나게 된다면 좋겠다 그게 많이 작
등집사만 서도 가족이 있고 많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만나
지 못했으니가 권하 나다치면 만나게
하면 좋겠다

- 미산 참 -

이산가족은 70년 전 남북분단
이후 만나지 못했다. 그들의
아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가산금이 있더라도 얼른 돌려주기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 함께
보내어 넘어서 화합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다.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17일이 된다” - 생존과 절반이상 80대 나이 ‘희망2문’

이산가족 등록현황 [단위: 명, 2019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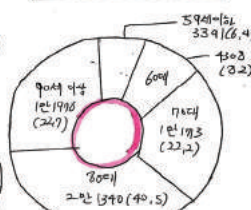
전체 13판 3370

새종자 5만 2730

현행별 생존자 현황
(단위: 명, 괄호 안은 백%)



작성 내용



지체할 시간이 없다." 결국 이선가족은 연세
관련해 건강보험이 한 달 이상 차기 일이다.
특히 2011년 2월 5일, 2016년 2월 7일은
장기간 미납 가족 교육과 지원서 제출했다.
이선가족은 시가한 현재 미납 가족 상환 방법과
연세 관련 상담을 받는다. 또 연세별 50만원 이상
미납 가족 지원금도 받는다.

최해광은 "이산 가족 대부분은 북한이 고립
당도 그리도 낯이 뜨겁게 느껴진다"며 "남북
정치적인 문제를 일단 회담에서 해선 안 되
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현 국회입법조사관은 "이산 가족 문제를 사회의
해결이 아니라서 다양한 사회정책과 함께
남북한 양측이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침

정북 역시 고령이 된 빈민가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원 가족과 교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쪽 이산 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과 정책 매 반영
토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모든
층의 소득이 많이 증가된 건 아니라는 것

내의역

남동철은 6.25전쟁으로 일본에서 현면
가마의 약단작이 생겼고 신사는 고장으로
가져 새마을 따르 7만여원 쓰는 생활
원은 131로 돈은 약단 되어 잡기 보충
한바다 같이 아들은 장로로 한바다 생각
별이 남동철이 1월 10일에 35살이 되
환복한 남동철은 총 4백만
만 원은 100만원 남
남동철은 100만원 남

아이들과 몸조심해야 하는
곳에 노출라니 충격
자체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다.

힘은일 뒤에는 안정과 휴식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만질과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곳에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그에 따르는
배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산속 고리된
공간 아니라 다른 산속 코르도바나
병민 등 한가짜 안전을 취해야
하는 곳인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
보안은 강화해야 한다. 꼭

산후조리원에서 노숙자가 들어오
다니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었
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경계를 늘려야만 좋겠다.

아무리 죽어도 그렇지 들어와선
만들 공은 들어갈 정도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지 않다. 년명부터
성리가 없고 논성의 게이가 보지
않는다. 그리고 조지원 관계자는
그 장소의 보안 강도를 몰랐으면
좋겠다.

산주조권은 편의 위하여 하는 것이니
노숙자가 침입하여 산의와 마루 불타는
것 같다. 강행 출현뿐만 아니라 다른 산주
조권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보아야
한다.

방 들어갔더니 갑자기 낮잠 자기... 노숙원에 들어 산과기원.

기사내용 → 중앙일보 (연합뉴스)

강원도에서 한 산악관광지에서 노린 남영이 아무런 계책 없이 산모방
안에 출입한 일이 많았었다. 이럴 때 산모는 장외 중계를 받았고 산로
조직원 등은 재발 방지를 약속 했다.

강원도 동원시에 있는 산속조각당

산후조리원 7/1

→ 사건 이후 CCTV를 늘리고 출입카드를 만들어 직원, 산악인에게 나눠준다.
또, 출퇴근일 전까지 개방되는 길이 양로로 바뀐다는 것까지 바꾸기도 했다.

→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대가가 어떤 조 알코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남았을
"부유해서 들어왔다"고 단정했다고 한다.

피해자 부부의 말 (새로운 생명)

과거 감동이 피어난 산록 건널에 어떻게 왜일이 들었는지 물어 물어 물었다"고 말했다.

H 생리

한편, 초안에 있는 신규직원이어서 이런 말이 생겼을 양의 우려가 있다.
즉, 이 산고는 마음의 명까지 생기고 후퇴가 신규직원의 보다는 한층더
강한 양의 것 같다. 신규직원은 산고의 마음의 명을 지킬 해의 수 없이
생각되므로 보다는 강한 것임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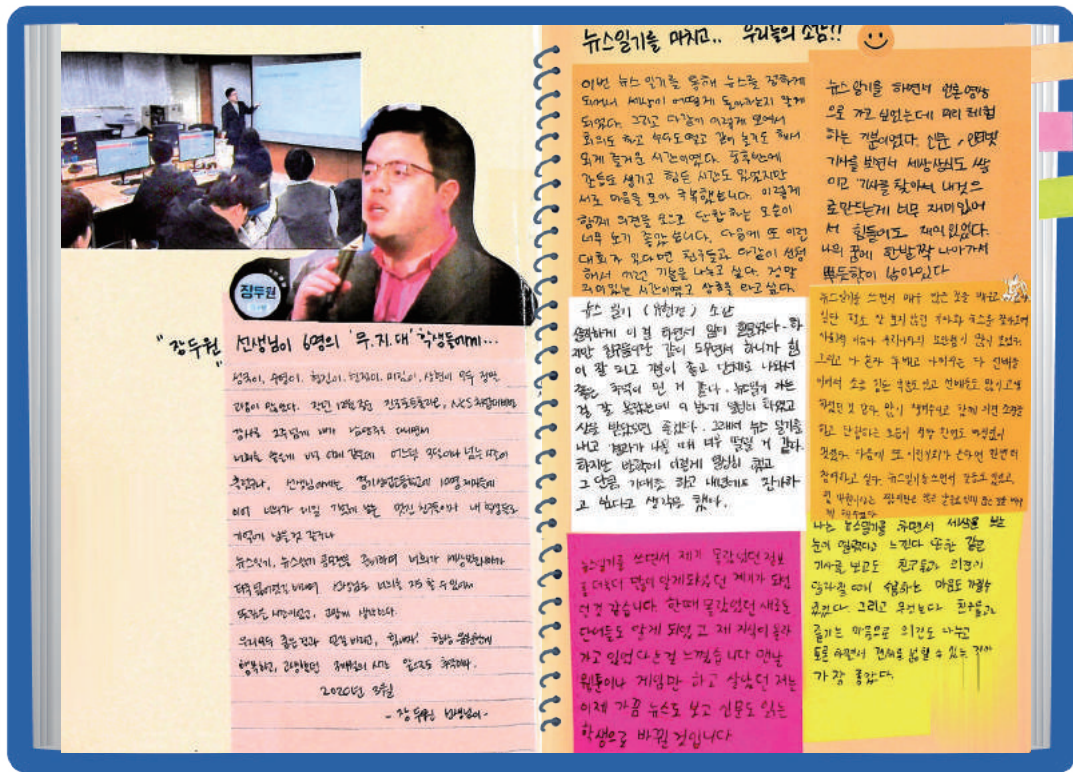


기사 본문



기사 본문

| 대표작품



뉴스일기 작성 TIP!

단체 청소년-은상 대표



<6반의 뉴스일기>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김건희 외 23명

수상소감

우리가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회 이야기들에 대해 읽고, 쓰고, 생각하고 즐기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뉴스일기였기 때문에, '은상'이라는 수상 소식을 받았을 때에는 의아하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일기는 저희는 평소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어쩌면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일지도 모르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열심히 뉴스일기를 끄적끄적 작성한 우리반 친구들과 다른 참가자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일기를 통해 평소 친구들과 대화주제로는 삼지 않았던 경제나 정치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실제로 토론을 진행해보기도 하며 다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는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자 흥미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진로 선택 및 진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뉴스를 접하며 더욱 뉴스와 친해질 수 있었고, 이제는 평소 학교 라운지에서 인터넷 뉴스창은 틈틈이 챙겨볼 정도로 모두들 시사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내용 요약

*내용 요약

- * 노민정

비판적 형성

* 진로 희망성

* 대2

2012 장항원

개나래농요약

பெரிய

비판적평설

3.3.2.1.2. 중간지점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기사와내용요약

기타사항요약

578

2025 2024

 $\frac{2}{3}CH_2$

2620 5004

9/15

① 기사 내용 요약

②느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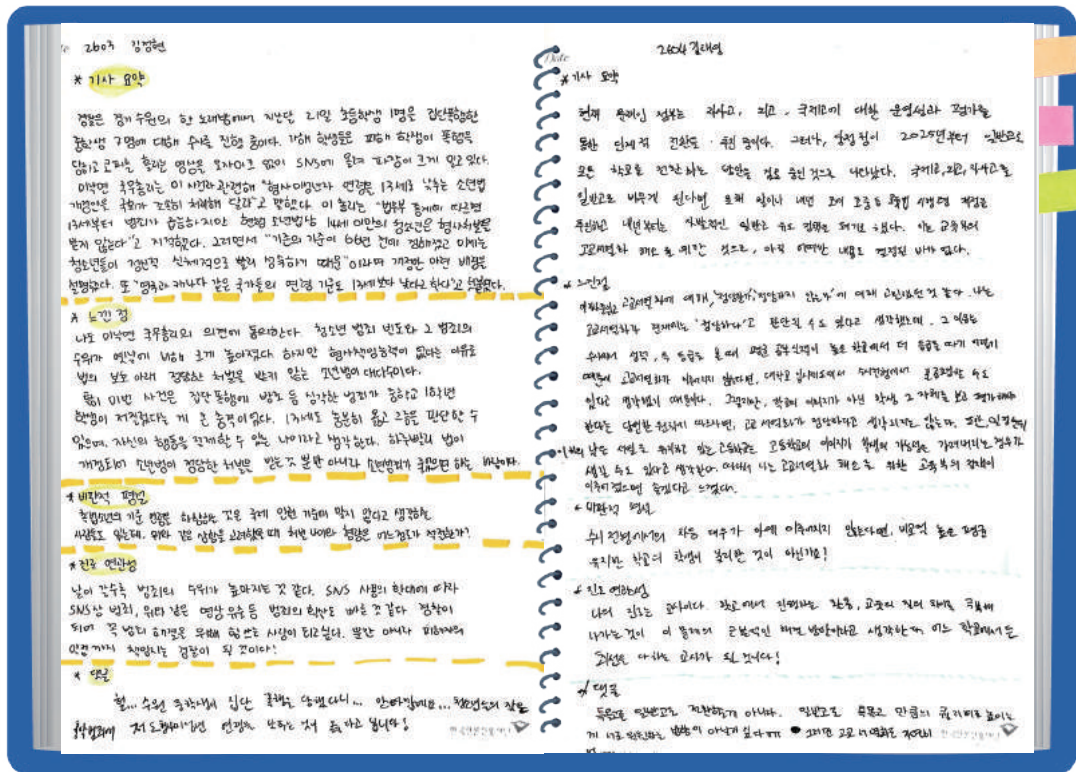
비즈니스 모델

□ 4월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읽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읽기는 것이 아닌,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뉴스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한 깊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도 뉴스를 파악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한 기사를 읽고, 플라스틱의 종류가 어떻게 되며, 각 종류 별로 폐기 및 처리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과정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로 뉴스일기 작성을 하는 팀의 경우 서로 뉴스일기를 피드백해주는 과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뉴스일기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뉴스일기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글쓰기 생활을 검토하고, 더 향상된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Date 2019년 5월 30일 (10218 장하준)

[illegible]

1940

기사 요약: **교회일정에 신동** 2019.11.9

누우면! 세례! 교우회! 타락을 막는 IS가 두렵기도 하고 믿기기도 하다. 타락은 언제든 누구에게 사탄만 상관없이 너무 발발한다. 특히 타락에서 가장 두려운 신자들이 13명이나 폭행당 한 뒤, 너무 준했다. 아모라아에 대한 안기들이 태몽을 자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온다 해대신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나 생각해 보면 그날에 자신 그도를 생각해본 사람은 스스로 타락을 안하고 싶을 것이다. 타락도 타락은 절대 있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타락도 결국은 자기 때문이다.



단체 청소년-동상 대표



<뉴스로 세상 읽기>

대전용운중학교 1학년 뉴스동아리 (지도자 김진영)
박하얀, 류시연, 이가현, 이가영, 유다솔, 백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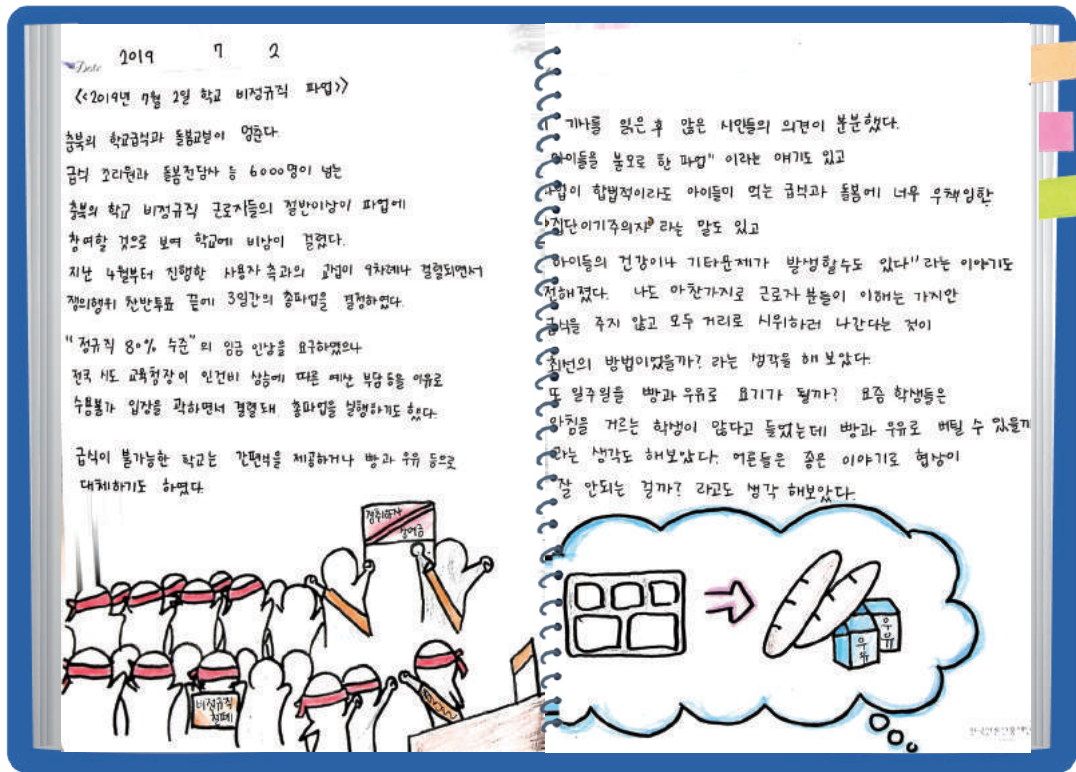
수상소감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수상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매일 뉴스를 보고 정리하며 일기를 작성하는 일이 힘들기도 했었고 종종 친구들과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뉴스에 항상 귀 기울이게 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 같지 않아서 정말 기쁘고 뿌듯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일기를 같이 쓴 친구들과 옆에서 다독여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 또는 사회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정세나 요즘 이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했으며,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기사를 읽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생활에서의 공통점, 혹은 연관되는 점을 찾아보는 과정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한 장씩 일기를 채워나가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1년이 지나고 종업식 날 완성한 일기장을 한 번 훑어보았을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할 만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기쁨과 보람이 더 기억에 남아 기회가 된다면 또 친구들과 뉴스일기 공모전에 응모해 보고 싶습니다.



기사 본문

뉴스일기 작성 TIP!

첫째, 그날의 실시간 검색 뉴스 순위를 살펴보고, 하나의 기사만 보고 쓰는 것보다는 사건에 대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하며 정리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 뉴스의 내용이 한 사람의 감정만 드러나 있지는 않은가?', '그 뉴스의 내용이 추측성 기사인가 실화를 다룬 기사인가?' 등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추가로 기사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조사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공통점 혹은 비슷한 점 등을 찾아보고 같이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려 그려보는 것도 좋고, 강조할 내용은 색갈 펜 등으로 잘 보이게 표시하면서 기사를 정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체로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는 친구들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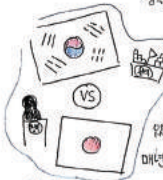
단체 청소년-동상 수상작

<삼천중학교 3학년 - 김민주 외 27명 (지도자 이경아)>

Grade 2019년 9월 10일

일본 수컷 귀뚜라미와 불어동물, '한 노닐 뽀뽀' - 30406 경혜진

일본이 수컷 귀뚜라미와 불어동물, '한 노닐 뽀뽀' 두 마리 자란데도 한 달 만에 불어동물이 한 마리 보지 않는다. 또한, 불어동물은 연하 일본 귀뚜라미와 함께 살고, 불어동물은 일본 귀뚜라미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의 수컷 귀뚜라미가 불어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의 수컷 귀뚜라미가 불어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의 수컷 귀뚜라미가 불어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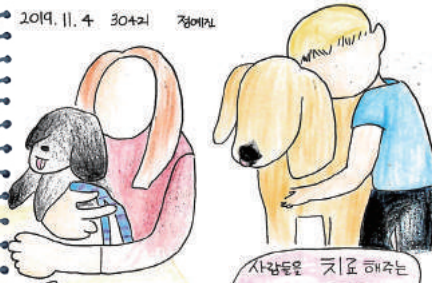


한 노닐 뽀뽀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한 노닐 뽀뽀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일본 귀뚜라미와 불어동물은 함께 살고 있다.

2019. 11. 4 30421 정예민



동물이 사람을 치료한다.. 동물들
동물매개치료

이번 기사를 통해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 동물에 관한 뉴스를 동물매개치료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그 뉴스에 대해 동물들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물들이 우울증 도와 같은 역할을 생각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정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다고 느껴졌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충실하고 착한 동물들인 동물매개치료 동물은 삶에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친한 친구, 가족이나 양육하고 싶다. 진실로 사랑하고 잘 대해주며 학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학대 당해도 우리를 도와주며 좋아하는 모습을 미안해하지도 않고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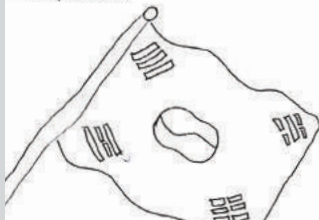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새싹들의 NEWS - 황지원, 김혜진, 나예준, 조우민>

2019. 06. 17



검찰, 피아 사건 수사 넘겨라 재조
조사는 한번도 안해-

Y6 앤더슨민민다가 가짜 비아의 마약 사수를 무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다시 검찰이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검찰주권론이 나왔다. 수사당국에서는 JTBC 취재진에게 검찰이 Y6를 사수했다고 말리 수권도 보거나는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비아이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파악 되었다. JTBC 뉴스room 기자 2019년 6월 17일

What we think?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배후들이 Y6와 무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더러운면 아직 사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직면하면 고개 맞은 서로 받게바뀔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진실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고 야비하다고 생각되어 들고 관련 열매나, 한국은 한국비리도 이 되돌아 보자

2019년 7월 15일

“日 경제위력 제2의 침략” 한국이 원한하면 관습 가능

壬辰倭亂

최근에 전국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은아씨 정권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문제인 정부를 평가 전국지향하는 한류로 한국인이 막아야 한다고 독려 했다.

최근에 교수인 “식민지 지배의 가장 직접 피해는 정치·경제적 폭력”으로 “우리(한국)의 자원을 특히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게 가장 지속적인 식민지정 피해다. 이게 가장 크게 한다”며 “식민지 지배 세력의 의도가 실패할 경우 일본이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러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정립 될 수 있다.

나는 우리 조국이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아픈 과거가 겪어야 되고 과정이라고 본다. 이한일을 얻을 수 있는 문명적인 이득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ign 나는 일본 불매운동을 함께 하겠다!

조우민 황지원 김혜진

나예준



왼쪽기사



오른쪽기사

단체 성인-금상



<꿈꾸는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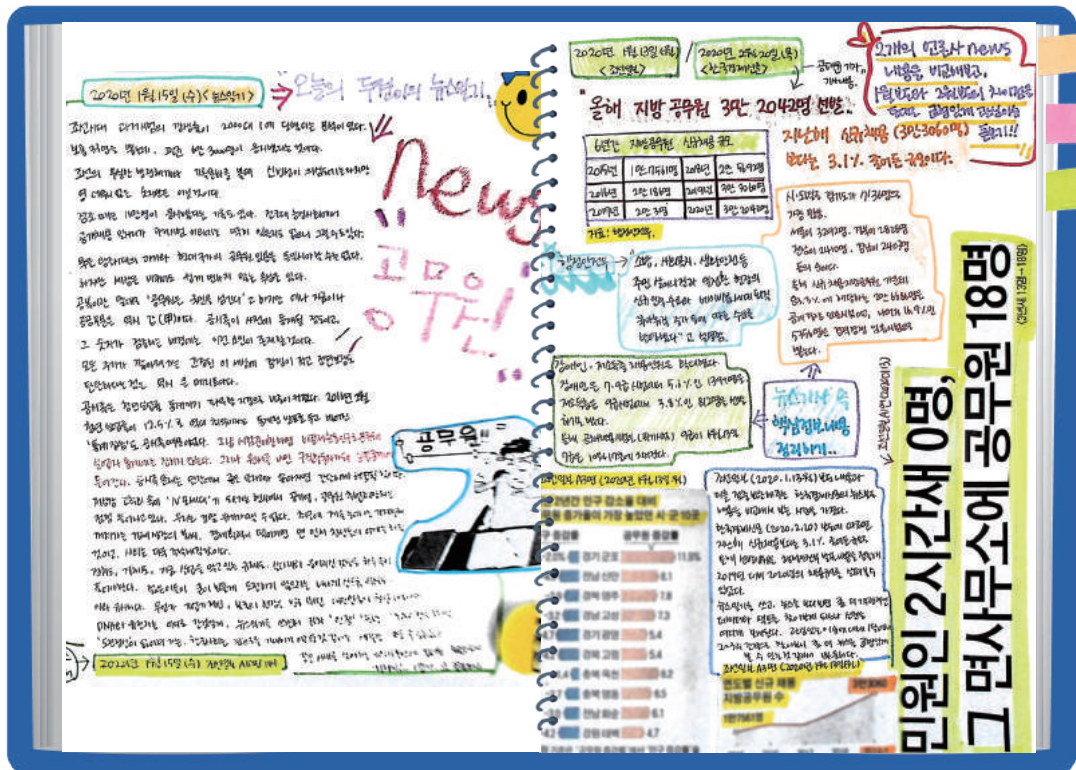
장두원, 송재연, 장다연

수상소감

어느덧 든든하고 멋지게 자라준 20대 아들딸과 이런 좋은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대회에 성인부문 금상을 아들딸과 함께 수상해서 기쁘네요. 두원아, 다연아 사랑한다(송재연). 같이 고생한 오빠, 그리고 우리 엄마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겠습니다(장다연). 5년 전 고2였던 여 동생을 이끌고 전국 NIE 경진대회 신문스크랩 부문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함께 뉴스일기를 작성했고 이번에는 저희를 든든하게 지지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송재연 여사님께서 정성을 담아 그린 민화작품과 캘리그래피 글씨 등 뉴스일기도 같이 써주시며 고생해주셨습니다. 엄마, 다연이 모두 고생 많았어요(장두원).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바쁘게 지내는 남매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뉴스를 함께 보며 생각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어서 유익했고,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송재연). 아나운서라는 꿈을 진로로 정하고, 목표하면서 뉴스는 제 삶의 일상이자 일부였습니다. 취미처럼 즐겁게 임해오던 뉴스일기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꼭 훌륭한 언론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2020년을 보내겠습니다(장다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느낀 점은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족은 함께 뭉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도 기회가 주어 진다면 또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장두원).



잡지 읽어야... 임미라 함께하는 뉴스알리. 뉴스알리..

P: Plus, 글자작은
M: Minus, 부채꼴
I: Interesting, 질문
I: I Love Reading, 내비고
한국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
기대합니다.



뉴스 속 정보정리. +알리. ①

우리가 100년 신문을 다 읽을 거예요.
'100년 신문'이 세계 최대의 뉴스는 무엇일까?
[신문의 창간] '조선일보'는 1920년 1월 1일 창간했다.
창간을 기념하여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창간했다.
1970년대 창간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창간했다.
창간을 기념하여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창간했다.
창간을 기념하여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창간했다.

뉴스알리. 뉴스알리. (이제는 뉴스알리)

뉴스알리. 뉴스알리. (이제는 뉴스알리)
뉴스알리. 뉴스알리. (이제는 뉴스알리)
뉴스알리. 뉴스알리. (이제는 뉴스알리)
뉴스알리. 뉴스알리. (이제는 뉴스알리)
뉴스알리. 뉴스알리. (이제는 뉴스알리)

100년 신문의 DNA는 신뢰였다

100년 신문의 DNA는 신뢰였다.
100년 신문의 DNA는 신뢰였다.
100년 신문의 DNA는 신뢰였다.
100년 신문의 DNA는 신뢰였다.
100년 신문의 DNA는 신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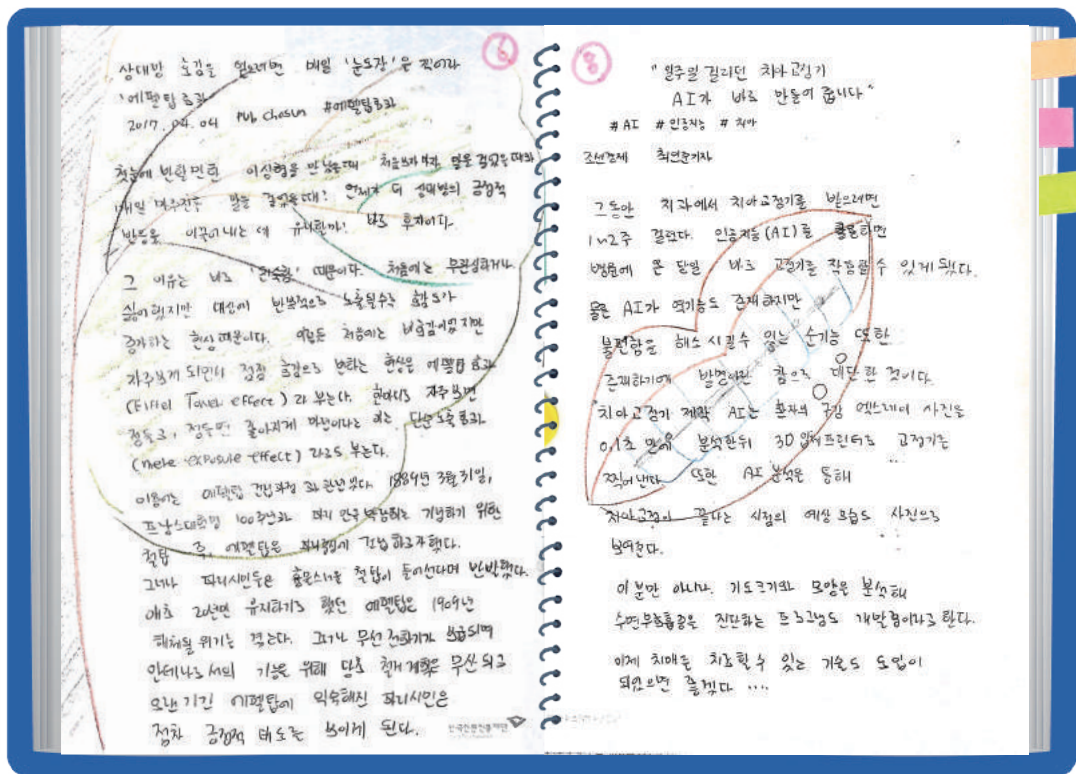
2019. 12. 19 <강양영>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다면이 생다..





원쪽기사



오른쪽기사

뉴스일기 작성 TIP!

1. *KWL 읽기 활동 : 뉴스를 각자 KWL(알고 있는 것/알고 싶은 것/알게 된 것)로 정리
2. 직접 편집국장이 되어보는 게이트 키퍼 활동 : 중요하다고 생각한 헤드라인, 사진, 뉴스들을 정리해서 다시 뉴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 공유
3. 뉴스를 읽고 색깔별 3개의 포스트잇으로 각자의 생각 정리
4. 책이나 신문의 도표, 그래프, 참고할 만한 통계 자료나 인용 문구들은 직접 손으로 쓰거나 그려보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나 내용은 스크랩 핵심내용 필사 연습
5. 다양한 명사와의 인터뷰, 유명인사와의 만남, 특강 등을 듣고 소감과 함께 뉴스일기에 기록
6.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칼럼들을 스크랩 하고 엄마가 보는 관점, 남매가 보는 관점들을 기록
7. 가족이 모여서 나눈 뉴스내용을 정리해 오늘의 말풍선 뉴스로 만들어 보는 활동
8. 정기적인 뉴스일기 회의

*KWL 읽기 전략

K : What I Know W : What I Want to Know L: What I Learned

단체 성인-은상 대표



<단초(Clue)의 2019 뉴스일기>

단초(Clue) (사단법인)기회의 학숙 연구원 모임
고윤미, 유판수, 정희숙, 김양희

수상소감

'뉴스일기'라는 새로운 도전은 저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무료했던 일상 속 잠자고 있던 내 안의 열정을 깨우고, 서로 간의 따뜻한 소통과 공감 속에 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글쓰기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발견은 또 다른 성장을 향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희망을 품고 피어나는 꽃들처럼 앞으로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10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 만들어진 뉴스일기는 우리에게 매우 새롭고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은 어느새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었고 빠르게 채워진 뉴스일기만큼 세상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불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 검색에 의존한 채 그 정보 또한 내 생각 인양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뉴스일기를 통해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미디어교육을 통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분별력 있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기장의 두께가 늘어나면서 채워가는 즐거움을 주었던 이번 공모전은 뉴스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른쪽기사

117



<인권동아리 '함께가치' - 강현정, 김남경, 김세진, 오미경 (지도자 이재현)>

제5차 인권동아리 '함께가치'

1. 일시: 2019. 7. 3. (수) 오후 7시~10시
2. 장소: OO 스터디룸
3. 참여: 강현정, 김남경, 김세진, 오미경, 이재현

I. 인권 그루터기

1. 인권조항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라가 개인이 아닌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인 신탁통치지역이나 비자치지역인 또는 그 밖의 다른 국현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면,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의무를 고려로 책정이 행하여져서도 아니 된다.

2. 국제인권차별 철폐의 날 (3월 21일)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20개의 원동력으로 아프리카 유엔총회가 선포한 날이다.

이날은 1960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트버그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여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 부디 유래되었다. (샤프트버그 살상)

인종차별주의 법과 관습들은 많은 나라에서 폐기되었고, 유엔은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라 인종차별주의 싸우는 세계적인 등록 작업했다. (국제: 위키백과)

II. 인권 꽃 피우기

1. 뉴스독 인권

GUCCI 타블레 스위치 출시

조용합니다!! 판매 중단!



흑인 인종차별 흑인 비하성

저런 옷을 만든 의도가 뭐예요

2. 광고독 인종차별 사례

★ 독일 호른바흐 회사의 광고



QR 코드로 유튜브 (광고읽기) (출처: 유튜브)

인종차별 내용

백인남성의 팔에 검은 옷과 속옷을 숨겨서 개별 전용 포괄후 과원에서 판매하고 이것을 아시아여성에게 구매하여 그단 농성을 받고 살육해 하는 광고이다. 백인남성의 팔을 새운 광고도 황혼경에 비치는 아시아여성들 표현하고 있고 백인남성의 팔을 새운 불의 창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백인남성의 팔을 새운 광고도 황혼경에 비치는 아시아여성들 표현하고 있다. 이런 아시아여성들 성폭, 인종차별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



기사 본문

단체 성인-동상



<뉴스 읽고 시작(詩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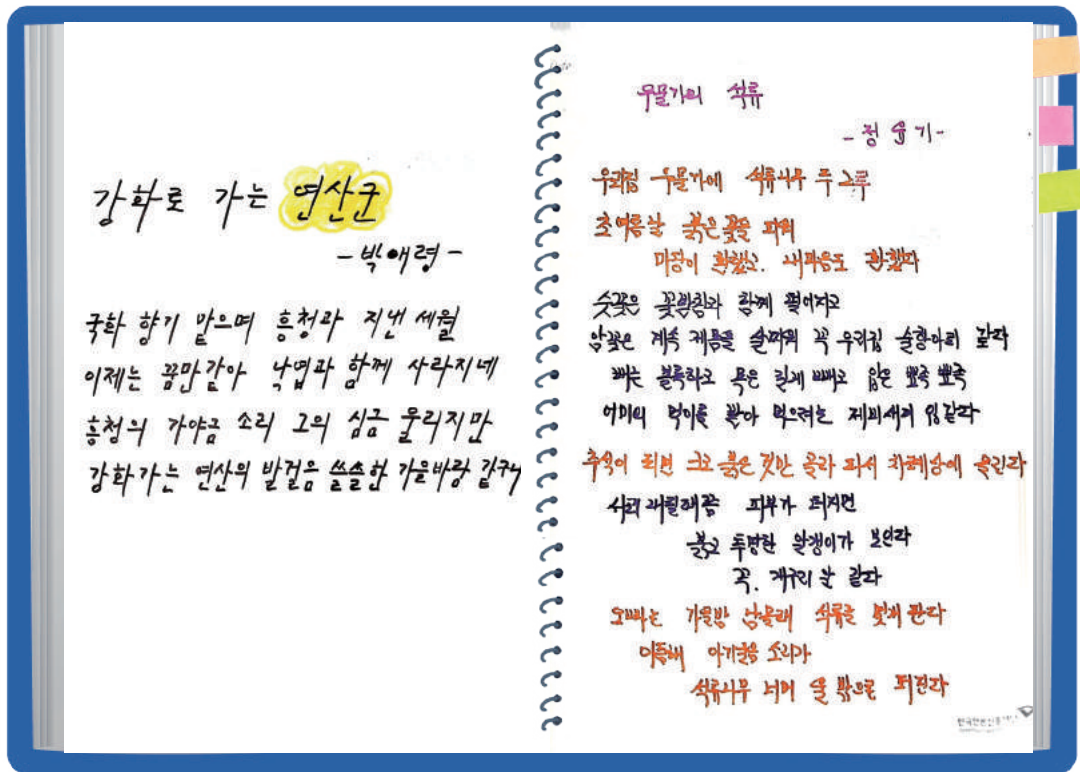
시동아리 '시작(詩作)하다' (지도자 이재현)
신흥식 외 7명

수상소감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실버들로 구성된 시 동아리입니다. 2018년에 출범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시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모임입니다. 신문의 문예면을 참고하여 주로 시 분야 또는 다른 문예 기사를 참고함으로써 '시작(詩作)하다' 모임 활성화에 자양분이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모임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회원 모두가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현대 사회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하듯, 많은 사람들이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상호 교류와 소통이 부족하여 행복지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전은 저희에게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저희는 각자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게재된 시와 시평 기사를 읽음으로써 감상과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각각 다른 신문의 특색 있는 문화면 기사를 접하며 풍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공모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친목을 다짐으로써,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이 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뉴스일기를 작성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사 본문

뉴스일기 작성 TIP!

‘시작(詩作)하다’ 동아리는 공통의 관심사인 시와 뉴스를 통해서 읽게 된 시를 뉴스일기로 작성했습니다. 주로 지역의 시인 관련 뉴스를 찾아 읽고, 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 정보를 파악한 후, 시 감상 및 창작 혹은 문학관이나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대표로 도봉구 관련 시인인 김수영(김수영문학관과 시비 소재), 이생진(도봉구 거주), 함석헌(함석헌기념관 소재), 그리고 조선의 왕이었던 시인 연산군(연산군묘 소재)의 어제시 등 관련 뉴스를 읽고 시를 창작하였습니다.

또한 구독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서 매주 소개되는 시 ‘시가 있는 일요일’이나 ‘시인의 마을’, 그리고 독자의 관심을 끌며 계절마다 바뀌는 광화문 글판의 시를 뉴스에서 찾아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와 관련된 주제로 창작한 시를 일기장에 담았습니다.



박우연(금부초등학교 2학년 1반 지도자)

수상소감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처럼 생각쟁이들의 마음에 뉴스 꽃이 활짝 피어난 뉴스일기장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함께 어울려 걸어온 시간들에 뿌듯함이 한가득입니다. 어려운 낱말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긴 내용이 버거워 가끔 띄엄띄엄 읽기도 했지만, 이렇게나 많이 썼다면서 자랑하듯 펼쳐 보이며 활짝 웃는 아이들의 첫 번째 뉴스일기장 이기에 더 의미 있었습니다.

결과발표 날, 아이들이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함박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이거 꿈은 아니죠?”라는 반응부터, 환호하는 아이, 잘 지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어머니의 인사까지... 새학년이 바뀌었지만, 뉴스일기를 계기로 아이들, 학부모님들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마지막 단추를 잘 꿰거 같아 스스로 토닥여주었습니다.

지도방법

<알록달록 생각색깔이 입혀진 알짜! 뉴스 이야기 보따리> 이렇게 차곡차곡~ 채웠어요.

매일 생생 정보통을 만나요. :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어린이 일간지를 학급에서 구독하면서 ‘뉴스와 친해지기’를 했습니다.

뉴스로 여는 아침풍경 : 우리 반 ‘0교시’는 <생각쟁이 뉴스타임>으로, 아침밥을 먹듯 매일 꾸준하게 뉴스를 읽었습니다. 뉴스를 읽을 때, 자기만의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며 읽었습니다.

뉴스를 맛있게 남남 : 뉴스를 스크랩하고 생각이나 질문거리 등을 뉴스일기 뿐 아니라 동시, 뉴스 사진 말주머니 채우기 등 여러 모양으로 펼쳐냈습니다.

뉴스 읽어 줄게, 잘 들어봐 : 아침 시간이 끝날 때 즈음이나, 교과 수업 후 짬이 날 때를 이용해 ‘뉴스 마법사’로 변신해 나누고 싶은 뉴스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학급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재현(미래NIE논술연구소)



수상소감

제1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부터 가족, 주부, 교사, 직장인, 어르신들, 동아리까지 쟁쟁한 실력을 가진 다양한 참가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압니다.

미디어의 발전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뉴스읽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때에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현명한 뉴스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다음 해도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전국민의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뉴스를 읽고, 치열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협력 활동을 하는 등 귀한 소통의 시간들을 함께한 인권동아리 '함께가치' 회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도방법

인권동아리 '함께가치' 리더로서 뉴스읽기 지도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인권 모습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인권으로 뉴스읽기→(2)인권 그루터기→(3)인권 꽃피우기 3단계로 뉴스일기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인권으로 뉴스읽기'입니다. 시사 이슈 중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주제 관련 뉴스를 찾아 탐색해 비판적으로 읽는 과정입니다. (2)'인권 그루터기'는 뉴스 속에서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배경 지식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3)'인권 꽃피우기'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둠 토론의 장이며, 글이나 다양한 창의적 형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인권 감수성으로 뉴스를 읽고, 뉴스에 드러난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전 과정을 뉴스일기장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김자영(동신초등학교 2학년 1반 지도자)



수상소감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정규 교과에 밀려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현실에 아쉬움이 있던 차에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일기장을 활용하여 1년 동안 꾸준히 뉴스를 활용하면서 교과를 넘나드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의외로 학부모님의 호응과 관심도 높았고, 지도한 많은 아이들의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 등이 신장되는 결과를 확인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올해의 뉴스일기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뉴스 리터러시를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학년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도방법

학생들이 배우는 주제와 관련하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의 계기 교육 등 시기성이 중요한 내용을 고루 선정하여 함께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 후 크게 ‘낯선 낱말 찾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나만의 생각 표현하기’의 과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특성상 쓰기 위주의 수업보다는 뉴스를 읽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며 읽기, 질문 만들기, 더 찾아보기, 생각 나누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가정과 연계하여 정리한 활동 결과를 나누고 가족 소감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완성한 일기는 학급 밴드에 모두 전시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이 신문을 보지 않는 가정이 많아 초기에는 어린이 신문이나 쉬운 어휘로 된 인터넷 신문을 제공하였지만, 점차 뉴스일기에 익숙해지면서 방학에는 스스로 관심 갖는 주제를 찾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글, 그림, 표어, 편지, 시 등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김길환(점촌초등학교 5학년 1반 지도자)



수상소감

학생들과 함께 사회 시간 및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뉴스일기를 꾸준히 작성하였는데 학생들도 좋은 상을 받게 되고, 지도자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 공문을 통해 뉴스일기장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과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수업 자료를 받고 싶어 신청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참여해 준 덕분에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니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작성해 준 학생들도 있었고, 힘들어 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일기 작성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뉴스와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진 것 같아, 교사로서 뿌듯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도방법

사회 교과 시간 및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1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뉴스일기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보고 주요 내용 요약, 생각과 느낀 점, 궁금한 점 등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고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뉴스의 주요 내용 및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함께 그리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고, 글쓰기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서 일기를 쓰는 과정을 즐거워했습니다. 시간 내에 다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집에서 정성스레 고쳐쓰기를 해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일기를 쓰는 학생에게는 매주 주제를 바꾸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평소에도 관심이 없던 뉴스 기사들도 찾아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일기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과 글쓰기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특별상-같이의가치상



<뉴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쪽문>

발달장애인 교육기관 호산나대학 (지도자 박미영)
강건우 외 25명

수상소감

“와아! 대회 나가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는데, 우리가 한다고요? 거짓말 아니죠?”

뉴스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어찌 보면 간단한 공모전 준비. 하지만 남들에게 간단한 그 ‘생각하기’가 우리 학생들에게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한 마디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제법 긴 시간 고개를 가우뚱하고 눈을 깜빡여야 했지만, 대회에 참여한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을 기르고, 나아가 ‘뉴스읽기 습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을 기르길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인정하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느낀 점

1. 이용재 - 시사 상식이 늘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김남훈 - 평소에 잘 모르던 알찬 정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 이예린 - 뉴스를 알게 되고 많이 느꼈어요. 열심히 뉴스를 봐야겠어요.
4. 이가영 - 친구들과 다양한 기사 거리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5. 임유빈 - '코로나19' 사람들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이유와 코로나19 예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6. 이종현 - "반려견은 소중한요."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려견은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족입니다.



민재의 생각

점검은 태풍 하계말고 제대 군인들이

수빈의 생각

저는 학교에서 동발대를 대충해서
홍난적인데...지만 열심히하고
꼼꼼히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일 중요한 일이다.**

2019. 6. 18 (2019. 6. 10. 중앙일보)

다들 전에 점검을 받은 거북선의
대단이 무너져서 7명이 추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만약 취업을 한다면 내
가 맡은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겠습니다**

4차동학과 2학년 심지현

제목: **꼼꼼하게 합시다**



기사 본문

2019. 6. 4 (화) 5월 31일 중앙일보

**대니가 사람을
만든다.**

이 기사를 제목을 보듯이 왕후조피를 빼고
아무리 우승을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
면 그 명예를 훼손하면서 대접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지만 우
쫄대며 예의를 안 지켜서 우리나라
를 매칠한 것보다 같다. 나는 무기를
성공하고 이겨냈을 때 예의바르고
매너있는 성인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학과 2학년
공소윤

지현이의 생각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매너없
행동을 하지 않고, 매너 있는 행동과 선
지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리의 생각

무개념 행동을 하지 분자

종현이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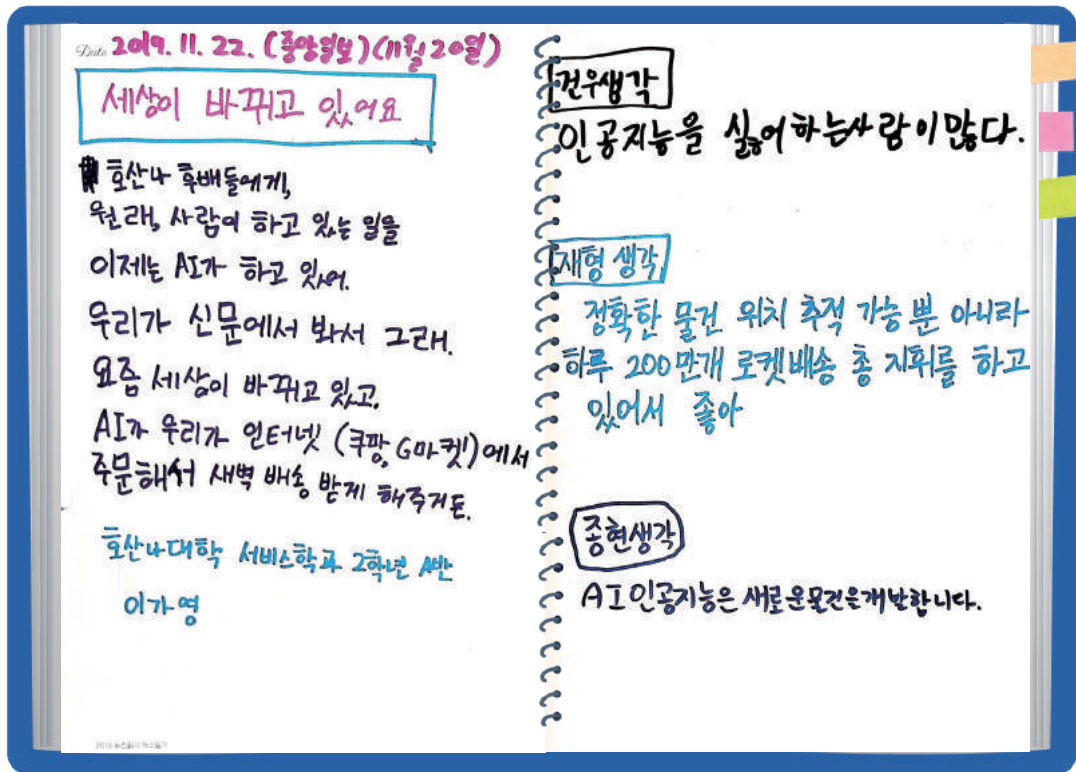
반성을 해야한다!

몽재의 생각

빛진 와우여과



기사 본문



뉴스일기 작성 TIP!

1. 뉴스선정

- 정규수업인 <시사 따라잡기> 시간에 <뉴스읽기 뉴스일기> 활동을 했습니다.
- 학생들의 생활 습관 및 태도와 관련된 뉴스, 진로나 학과와 관련된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 읽기, 분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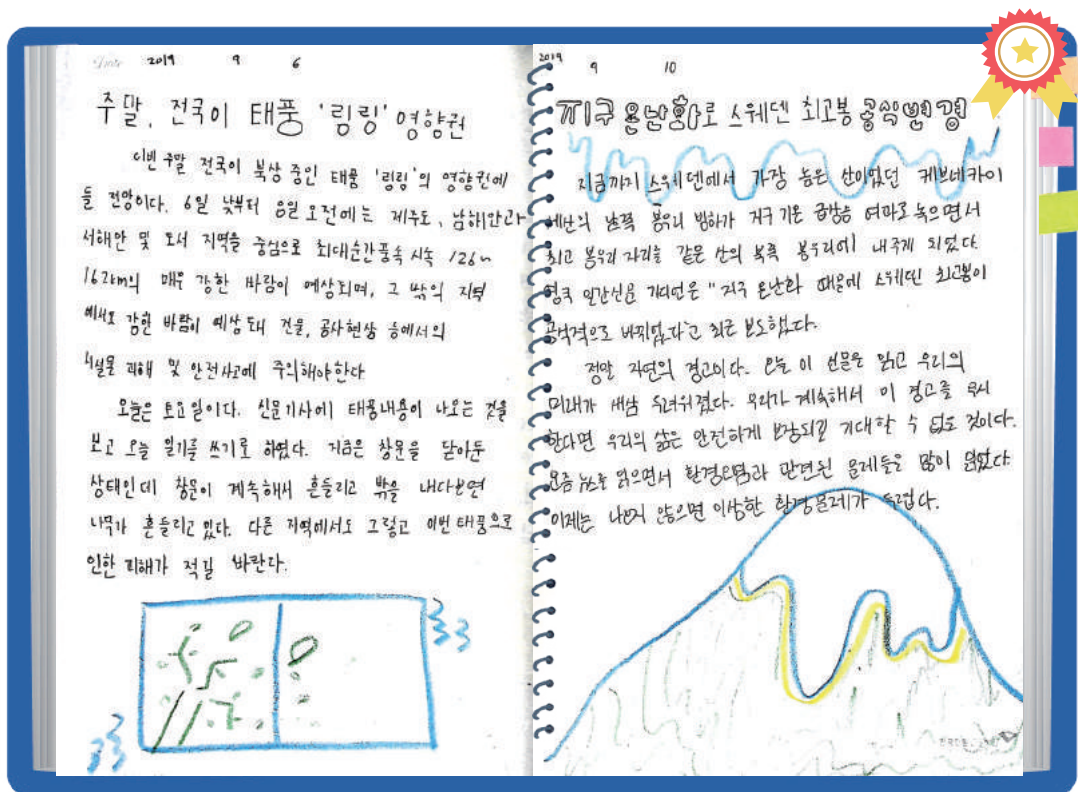
- 1학기에는 기사 전체를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함께 소리 내어 읽거나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2학기에는 각자 기사를 읽으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밑줄을 친 후, 밑줄 친 부분만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읽기를 마친 후 기사 내용이나 기사의 배경이 되는 사회현상을 짧게 설명하고, 그날 수업활동을 제시했습니다.

3. 생각정리, 일기 기록

- 기사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보았습니다. 가령 <93구로 완봉승, 류현진 “엄마 생신 선물”>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은 후 야구 경기 관람 경험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류현진 선수가 엄마 생신에 선물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행동(야구경기에서 승리)’임을 설명하고 엄마께 선물하고 싶은 나의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엄마전화 잘 받기, 양치하기 등)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특별상-열정이 빛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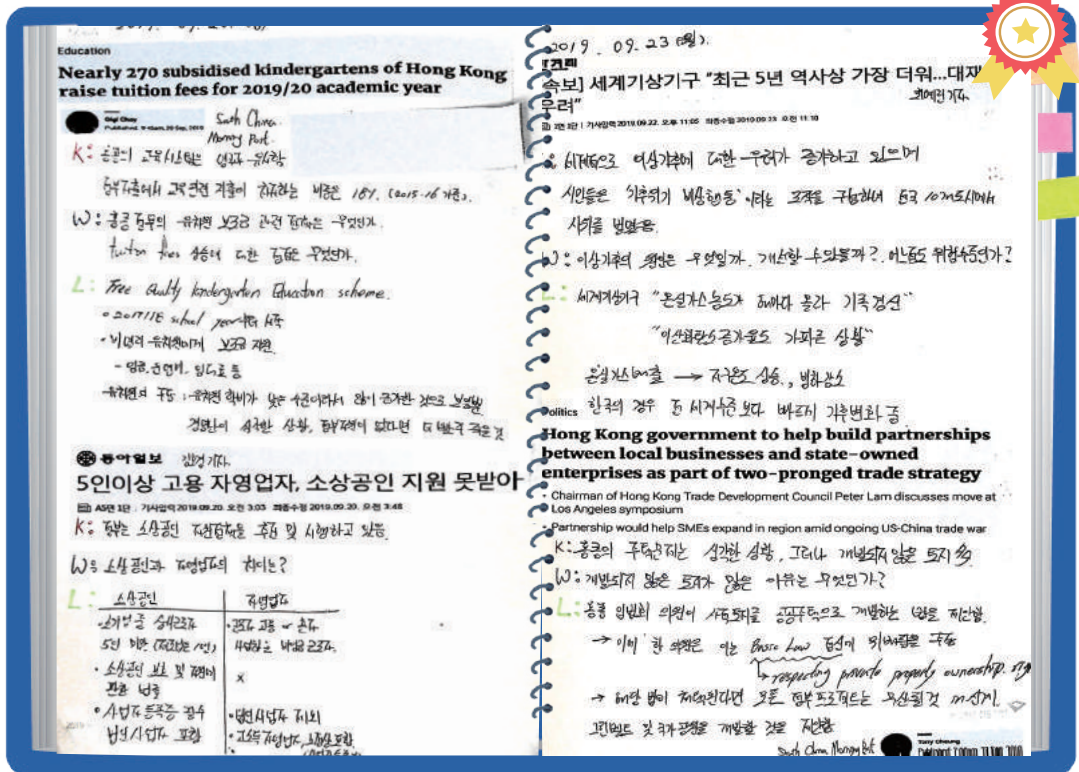
하기중학교 2학년 주윤하

공모작소개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엄마의 권유로 일기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흥미로운 일기장이었습니다. 평소 다양한 뉴스에 대해서 어린이 신문으로 재미있게 접하면서 기사에 관해 이런저런 제 생각을 마음속으로 풀어두고 있었는데 일기를 써나가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주로 즐거리+나의 생각+관련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만화형식이나 마인드맵 형식도 적용하여 다채롭게 일기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한마음으로 모이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뉴스는 여러 감정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식을 듣고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기장을 만든 까닭은 뉴스를 통해 모이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생각하는 뜻깊은 뉴스를 모아 정리한 이 작은 일기장도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매개체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상-열정이 빛나상



홍민준 (27세)

공모작소개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동아리를 하면서 신문스크랩을 시작하였으며 대학생이 되어서도 신문스크랩을 조금씩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신문스크랩을 하지 않았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신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문을 꾸준히 읽기 위하여 본 일기장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신문사를 구독해서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신문사의 기사를 접하고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을 읽으며 국제이슈를 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개념적 틀(Conceptual Lens)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스크랩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기장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K-W-L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K는 신문을 읽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W는 신문을 읽으면서 알고 싶었던 것을, 그리고 L은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날 나온 기사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사들을 정리하였으며 선택 배경, 내용, 그리고 간단한 생각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을 종합하여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선택 배경, 내용, 그리고 간단한 생각을 작성하였습니다.

전혜경 (52세)

이승록 (62세)

2019. 6. 14 ($\frac{2}{p}$)

오늘 각 신문들은 홍콩 시위와 관련 비중있게 다루었는데 특히 한 신문은 사설에서 「100만명 시민 홍콩 시위, 시민 의식 존중해야」라고 강조했다. 이 설쳐보면

법외권 인도 받은 개성에 반여회는 홍콩 시민
들의 시위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9월 역에 퇴계 구묘인 103만명(주파추추)
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2월에도 수만명이 거리로
나서 ‘법외권 인도 받은 반여’를 외쳤다. 홍콩 경찰이
물개포와 최루탄에 고무탄까지 동원하며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이 시민
들을 잡아쓰던 뒤 경찰봉을 나누 휘두르는 폭력 진압
형세가 소용돌이치며 하고 확산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했지만, 대체로 평화적인인 시위를 경찰이 끊임
진압하면서 사회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홍콩 당국이 주권송의 법칙의 인도 법안은 중국
을 포함해 예민, 마카오 등 법칙의 인도 조약을 제
정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법칙인들을

2019 5.30 0

조선일보

에베레스트 정상 대기줄 심각, 사망자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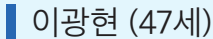
고산지대 탐험가인 알마타 사이알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 뒤
지난 23일 (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이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사망
자가 늘었다. 최근 3주간 죽음은 평소 사람만 10명이 넘는다. 이산면
무슨일이 있었단 걸까? 해발고도 8848m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
려면 8990m 지점의 할러리스팅이라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이곳
은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좁아 오르거나 내려갈 때 정상으로 가는 드
은 길목이라 사람들이 몰리면 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25일엔
영국 육군 산악인 로빈 피셔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하루 700여명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
한다며 전산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글을 남겼다.

미래초등학교 6학년 양효주

특별상-다이어리꾸미기상



구미여자중학교 2학년 김세연



〈뉴스읽기 뉴스일기〉가 더 궁금하다면? 🔍





주최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진행 : 미디어교육팀 정현정, 황서현 사원

제작 : (주)대학내일